



# 고맙습니다

<b>발행처</b>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588-1940 www.childfund.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b>발행일</b>	2022년 11월 18일
<b>발행인</b>	황영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b>제작</b>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b>기획</b>	(주)디노마드
<b>디자인</b>	(주)디노마드
<b>일러스트레이션</b>	(주)디노마드
<b>인쇄</b>	(주)세원정밀
<b>ISBN</b>	978-89-85648-77-6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원고 내용은 본상 수상작 227편 중 45편을 선정하여 원작자(아동)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 각 원고는 원작자(아동)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인적인 내용을 생략하였고, 제목은 원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자의 인적사항(학교/학년/이름)은 2022년 6월 공모전 접수 당시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일부 수상자는 요청에 의해 가명처리 하였습니다.
- 본 수상작품집은 초록우산 감사편지 홈페이지([www.thanksletter.or.kr](http://www.thanksletter.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목차

발간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황영기	8
심사평   제7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심사위원장 황선미	10
2차 전국심사·3차 최종심사 위원	12
엄마의 특별한 딸	18
이번엔 제가 할머니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20
아빠를 볼 순 없지만	24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의 부모님이 되어줄게	26
포근한 등을 가진 우리 형에게	30
나를 위해 젊음을 내어주신 우리 아빠	34
엄마의 사랑은 식지 않는 김치찌개	38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돌만 아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42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이, 다독임이 제 마음의 반창고가 되어 주셨죠	44
할머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을 다 안겨줄게	50
아빠의 비바람을 막아드릴게요	56
친절한 마음을 베풀어주신 90번 버스기사님	60
흉터 하나 없는 예쁜 손의 기적	62
고마워요. 우리 아빠라서	66
구름이 감싸 안는 포근함과 따뜻함을 준 고마운 내 친구	68
든든하고 소중한 우리 누나	70
선생님이 주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래요	72
사랑으로 항상 날 보듬어주신 우리 부모님	76
희망을 전해주는 누리호	80
우리 가족에게 곧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82
엄마, 평생 제 곁에 있어주세요	84

## 목차

이집트 국적을 가진 우리 여섯 명의 가족	88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행복한 미소	92
아버지, 이젠 제가 기둥이 되어드릴게요	94
나의 영원한 이야기꾼 할아버지!	96
사랑이 넘치는 1학년 5반!	98
아빠는 딸바보, 나는 아빠바보	100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나의 과거	102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이 가득 담긴 할머니의 김치전	104
할머니는 내 짝꿍	106
내 친구 선아의 따뜻한 위로	108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110
엄마, 내가 더 크면 우리 꼭 행복하게 삼계탕 먹자. 사랑해	112
너는 나의 비타민, 나는 너의 나무	116
가끔은 나비가 되어 찾아와줘요	118
소중한 나의 친구, 혜원이	120
신념과 용기를 알려준 김구 선생님	124
아빠에게 따뜻한 위로의 노래가 되어드릴게요	128
저의 생각과 마음을 180도로 바꾸신 선생님!	132
나는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알아	136
정말 대단한 우리 엄마, 사랑해요!	140
작은 틈 사이에서 피어난 꽃	142
언제나 엄마 앞에서 환하게 웃는 예쁜 막내딸이 될게요	144
빙판길 사고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148
선생님은 나의 이정표	150

• 발간사 •

반갑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황영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 폐해 중의 하나는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단절시킨 것입니다. 특히 가족 및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관계 단절의 벽속에 갇혀, 건강한 인성 함양에 필수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감사한 마음에서 좋은 인성이 자란다’는 모토를 가지고 2016년부터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아이들이 감사편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마당을 나온 암탉’ 저자로 우리에게 친근한 황선미 작가님을 심사위원장으로, 전국 현직교사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보다 탄탄하게 공모전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감사편지를 쓴 아이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주신 초록우산 임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은 ‘초·중·고등학교 대표 인성함양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6년부터 총 1,415,042통의 감사편지가 접수되었고, 11,827개교(전국 학교 중 96%)가 공모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4,839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318,088

통의 감사편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공모전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수상작품집은 아이들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45편의 감사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학생은 ‘감사를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할머니께 감사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상작품집에 담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도 잊고 지냈던 감사한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훌륭한 인성이 함양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사편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7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수상자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황영기**

• 심사위원장 심사평 •

우리는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관통하는 중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사실만으로도 침통한데 안으로 밖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지혜와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와 배려가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건 다른 사람 일이야, 나는 내 문제만으로도 바빠, 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타인의 문제에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바이러스 피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경계하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악수하는 일도 포옹하는 일도 마주 보고 환하게 웃는 일도 조심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마음마저 닫힌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은 이 와중에 만나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제가 읽은 감사편지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었고,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와 생각할 여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야 할 대상이 부모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동물이든, 나 자신이든, 어떤 순간이든 감사할 마음을 갖는 일 자체가 존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물도 없이 사막을 건너는 일 따위 아무도 겪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심사위원장 황 선 미

• 심사위원 심사평 •

아이들은 늘 옳다!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그 속에 일상이 묻어나는 문단 문단마다 아이들의 삶이 보이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는 아이들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보여 심사를 하는 내내 저 또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당연한 감사라고 생각했던 부모님, 선생님, 가족들에게 보내는 감사에서 일상에서 가끔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아이들의 따뜻한 눈길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더 의미 있게 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2차 전국심사위원 **고 나 경**

심사를 하면서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시작해야한다는 점, 거창한 것보다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국심사위원 **김 차 명**

코로나19의 영향인지 과한 정보기기 발달의 영향인지,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길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1차원적인 짧은 단어로만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웠던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에 초록우산의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은 아이들의 진실한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메신저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급 아이들과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을 함께 준비하며, 그리고 다른 지역 아이들의 감사편지를 읽으며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 또한 아이들의 마음으로 인해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2차 전국심사위원 **서 휘 경**

가장 쉽지만 어려운 말이자 감정인 감사... 아마도 감사편지 공모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정을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갈 때 보았다는 말처럼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은 우리가 그간 당연하게 느껴오며 잃어버렸던 그런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차 전국심사위원 **신 민 철**

• 심사위원 심사평 •

이번 초록우산의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심사를 하며, 평소에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진짜 감사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횟수가 아닌, 한 번이라도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전국심사위원 양 혁 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 당연한 도움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우리 삶 속 고마움을 찾아 표현하는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 인사 한 번, 눈웃음 한 번은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표현을 통해 더 따스한 세상을 만들어주어 고맙습니다.

2차 전국심사위원 하 지 수

이해인 수녀님은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감사함’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진심어린 사연들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3차 최종심사위원 김 문 주

학생들의 편지를 읽으며 애뜻하고 진솔한 사연이 주는 묵직한 울림은 적지 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감사할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현장에서 ‘감사편지’를 쓰는 것은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더 할 수 있는 보약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3차 최종심사위원 홍 승 표

이렇게 매일 말해도 부족할 만큼 엄마를 사랑해.  
엄마가 나한테 사랑 준 만큼 나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난 정말 행복해.



엄마의 특별한 딸  
장수지 | 용안중학교 1학년

이번엔 제가 할머니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재강 | 이리남초등학교 5학년

아빠를 볼 순 없지만  
김세진(가명) | 칠원고등학교 2학년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의 부모님이 되어줄게  
신동건 | 중량중학교 3학년

포근한 등을 가진 우리 형에게  
정원혁 | 대구장동초등학교 3학년

나를 위해 젊음을  
내어주신 우리 아빠  
김윤서 | 전주남중학교 3학년

엄마의 사랑은  
식지 않는 김치찌개  
김예주(가명) | 오천고등학교 1학년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둘만 아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손준서 | 대구들안길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이, 다독임이  
제 마음의 반창고가 되어 주셨죠  
박송이 | 인천청일초등학교 6학년

할머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을  
다 안겨줄게  
김지윤(가명) | 정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 엄마의 특별한 딸

To. 엄마께

엄마 저 엄마 딸 수지예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딸처럼 소중하고 예쁘게 다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고 오직 저만 보고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 들었어요. 남들보다 빛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해주시고 제가 좋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것도 맞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배울 점이 많고 좋은 사람입니다.

엄마를 만나면서 제 앞길도 새롭게 펼쳐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나은 최고의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딸 수지 올림

장수지 | 용안중학교 1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To. 엄마께

엄마 저 엄마 딸 수지예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딸처럼 소중하고 예쁘게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고 오직 저만 보고 이렇게 사랑받는 기분은 처음 들었어요. 남들보다 빛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해주시고 제가 좋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것도 맞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배울 점이 많고 좋은 사람입니다. 엄마를 만나면서 제 앞길도 새롭게 펼쳐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나은 최고의 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딸 수지 올림-

\* 장수지 아동이 작성한 감사편지

## 이번엔 제가 할머니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To. 나에게 엄마 같은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멋진 손자! 재강이에요.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저를 키워주시면서 힘드셔서 편찮으신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요. 할머니 지난 8년 동안 할머니와 살면서 한번도 편지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부끄럽지만 더 늦기 전에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싶어요.

할머니, 할머니와 제가 만난 지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제가 4살 때였죠?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누구지?”했던 것이 어렴풋 생각나요. 어색해하기만 하던 저를 보면서 할머니께서는 기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설거지를 해보고 싶어 할머니께 부탁드렸죠. “할머니 설거지해보고 싶어.”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수세미를 제 손에 쥐어주셔서 신이 났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풍풍을 너무 많이 짜서 싱크대를 온통 거품 바다로 만들어버렸던 날! 할머니는 그런 저를 귀여워해 주시면서 함께 설거지를 해주셨어요. 또 하루는 집에서 혼자 놀다가 리모컨을 잃어버렸어요. 분명 손에 쥐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

신 할머니께서는 울고 있는 저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울 일 아니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 편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할머니가 있으니 참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머니랑 살다 보니 제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순간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곁에 계셔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우리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들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는데 할머니가 오는 게 부끄러웠어요. 누가 제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 혼자 친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할머니께서 학교에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철없고 못됐죠? 할머니께서는 일하시다가 어렵게 시간 내서 체육대회, 체험학습에 와주시는 건데... 저 기죽지 말라고 오시는 할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재강아! 너는 왜 할머니가 응원 오시는 거야?” 한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제 엄마라는 사실어요. “왜 할머니가 오시면

안 돼?” 제게 묻는 친구에게 당당히 말한 후부터 자신감을 찾게 되었어요. 이번 운동회 때 할머니께서 대표로 나와 단체 줄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특별히 할머니는 상품도 두 개나 받으셨잖아요^^ 우리 할머니 최고! 할머니,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면 ‘안산’이라는 곳으로 아빠께 가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할머니 혼자 지내셔야 하잖아요. 이제 제가 점점 더 커서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는데...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쓰여요. 중학생이 되면 할머니를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생활할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꼭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 거예요.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할머니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지금까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거 아시죠? 항상 건강하시고 손자 재강이 생각하면서 매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2022년 6월 영원한 손자 재강이가

이재강 | 이리남초등학교 5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아빠를 볼 순 없지만

To. 아빠

아빠, 나 세진이야. 눈을 서로 마주할 순 없지만 마음은 전달되겠지?  
2019년 1월 7일 아빠와의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벌써 3년이 지났네. 중학교 1학년,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아빠는 나에게 장문 편지를 준 적이 있어. 그 안 내용에는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내 편을 들어줬지. 자랑스럽고 예쁜 딸이라고 매일 말해줬었어. 난 아빠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고 자존감도 올라갔지. 어쩌면 아빠가 없는 2년도 아빠가 내게 건넨 말들 덕분에 잘 견뎌낸 것 같아. 회사 일 때문에 따로 살았던 우리가 혼자 지내는 아빠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 우리에게 빈자리는 없겠지? 남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나만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 아빠랑 낚시도 가고 싶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픈 것 같아. 아빠가 머리 묶어주던 모습, 아빠가 밥 차려주는 모습, 아빠랑 둘이 놀이공원 갔던 것이 많이 생각나고 그리워.

아빠랑 같이 있을 때면 내가 어린아이 되는 것 마냥 행복하고 순수해져. 아빠가 힘들어도 내색 안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아빠가 속상해할까 봐 모르는 척했어. 그게 아빠를 위한 거니까. 난 아직 선명하게 기억나. 아빠가 돌아가신 걸 하루 지나 알게 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을 숨길 자신이 없어. 항상 그 죄책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게. 아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아빠 모습을 보고 화장했을 때 아빠의 모습을 보니 오직 회사를 위해 살아오고 몸에 수술할 때 빠지 않은 철사까지 있었어. 난 절대 잊지 못해. 난 아빠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따뜻한 아빠 품속에서 잠이 들곤 했지. 난 아빠의 목소리, 향기까지 잊지 못해. 미안한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아서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술을 마시고 매일 밤 전화해서 사랑한다 하고 맛있는 걸 사오던 우리 아빠, 내가 많이 사랑해. 지켜봐줘. 난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오를 거야. 그러니까 응원해줘. 아빠를 볼 순 없지만 아빠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야.

항상 미안하고 사랑해. 그리고 감사해.

From. 둘째 딸 세진

김세진(가명) | 칠원고등학교 2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의 부모님이 되어줄게

To. 나밖에 모르는 아들바보 우리 엄마에게

엄마 안녕? 나 엄마 아들 동건이야. 평소에는 내가 고맙다는 표현을 말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편지로 한번 말해볼게.

엄마 나 어린이집 다닐 때 아빠는 항상 늦게 들어오고, 엄마 혼자 나를 돌보면서 일을 하니깐. 가녀린 몸으로 어떻게 그걸 버텼는지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마워. 늦게까지 일하는 바람에 몸은 한없이 지친 상태였을 텐데 그 상태로 나까지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밥해주고 놀아주려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나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만약 내가 엄마였으면 그렇게 생활한다면 진짜 힘들어서 포기했을 것 같아. 엄마는 역시 존경스러운 슈퍼맘이야.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우리에게 더 힘든 소식이 왔잖아. 신이 있다면 운명이고 나발이고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었을 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었지. 아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쉬어보려고 하니깐 사형선고라니. 믿기지가 않더라. 결국에는 암 병동에서 입원하고 수술날만을 기다리던 엄마를 본 나는 엄마가 꼭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같이 보여서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결국에는 나중에 기다리던 수술날이 왔고 침대에 누워 힘없이 가는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 수술실을 들어가고 병실에서 기다리다가 한 시간을 기다려도 두 시간, 다섯 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져서 제발 안좋은 소식을 듣고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지 않길 바랬어. 그리고 6시간째 기다리던 중 다행히 엄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들어왔었는데 들어온 엄마 모습을 보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큰일 날 것 같아서,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펄펄 울었어. 안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내가 그때 화장실에서 안 울었으면 엄마가 얼마나 더 힘들어했을지 벌써 상상이 된다. 울고 나와서 간호사분이 나랑 아빠한테 절대 눈을 감게 하지 말라고. 지금 눈 감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던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렸지. 자꾸 엄마가 눈을 감으려고 해서 엄마를 계속 부르느라 힘들기보다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엄마가 깨어나지 않을까 봐 그게 더 겁이 났던 것 같아. 그렇게 힘들었던 날이 어떻게 잘 지나고 회복할 때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두 명씩 돌아가시니까 엄마도 엄청 불안했을 텐데 좋은 생각 잘해주고 건강하게 퇴원해 줘서 너무 고마워.

난 요즘에 걱정이 많아졌어. 학교에 있을 때 갑자기 엄마가 쓰러질까 봐. 아니면 내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엄마가 전화했을 때 못 받고 나면

갑작스럽게 엄마랑 이별이 다가올까 봐. 요즘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 이런 말을 하면 엄마가 또 내 자식 걱정시킨다고 생각할까 봐 말하기가 힘들었어. 이제는 나로 인해서 엄마가 엄마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마가 나를 배려해 주고 내 편 들어줄 때마다 나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쩔 때 보면 엄마는 아들 바보 같아. 항상 내가 화를 내도 내 편을 들어주고 왜 항상 내 생각만 하는 건지. 엄마는 왜 다 내 생각만 해? 왜 엄마는 한 평생을 내 생각만 하고 살아? 라고 하면 엄마는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러겠지. 그래도 이제는 내 생각보다 엄마 본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좋은 말로는 엄마는 내가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 자신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엄마 자신의 걱정도 해보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모아서 나랑 하든 아빠랑 하든 가족끼리 해보자. 그리고 엄마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더 하는데 엄마 그런 걱정 하기 전에 엄마 본인 생각을 해. 내 소원이야.

만약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음 생에는 내가 엄마의 부모님이 되어줄게. 부모님이 돼서 고생 1도 하지 않게 해줄게. 엄마의 편이 되어서 항상 힘이 돼줄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하는 게 어려워 미안하지만 난 진짜 엄마를 사랑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난 엄마가 좋으니까. 애처럼 군다고 생각해 줘. 언제쯤 내가 철이 들어서 엄마에게 든든하고 멋진 아들이 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노력해 볼게.

앞으로도 꼭 건강해야 되고 내가 건강하게 만들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나랑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엄마 진짜 많이 사랑해♡

From. 아들 동건이가

신동건 | 중랑중학교 3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포근한 등을 가진 우리 형에게

형, 나 원혁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형이 나를 무척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알았어. 물론 나도 형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을 미워한 적은 없었어. 다섯 살 차이지만 형이 나와 놀아줄 때도 많아서 난 형이 좋거든. 가끔씩은 무심한 듯 간식을 툭 꺼내놓으며 “먹든지 말든지... 네가 좋아하는 과자 같아서..”라고 말하며 나를 잘 챙겨준다는 것도 알아.

지난번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데 큰 형아들이 무리 지어 나타나 무법자처럼 행동해서 내가 속상해하며 집에 돌아왔던 날 기억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는 엄마의 말에 순간 꺾꺾 놀렸던 서러움이 터져버렸던 거 같아.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말씀드리는데 형이 갑자기 뛰쳐나갔잖아. 솔직히 난 늘 그랬듯 ‘거북이처럼 느긋한 형이 또 여유를 부리다 시간에 쫓기듯 학원에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런데 잠시 뒤,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 “원혁아, 너희 형이 아까 그 깡패 형아들 따끔하게 혼내주고 있어. 나쁜 짓 하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너희 형 정말 멋지다! 나쁜 형들 갔으니 내려와. 놀자!” 좀 전까지도 엄마의 위로를 받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던 난 구름 위에 올라탄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놀이터로 향했어. 도착하니 저만치 앞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원으로 향하는 형의 뒷

모습만 보였어. ‘쫓아가서 고맙다고 말할까?’ 생각했지만, 바쁜 형을 부르면 왠지 또 짜증이 돌아올 듯해 그냥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바라보다 말았어.

“그때 고맙다고 말할걸...” 형과 다툰 때마다 그런 후회가 들곤 해. 왠지 내가 형에게 고맙고 좋은 감정들은 잘 표현하지 않아서 형이 내 마음을 자주 오해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던 중, 사소한 일로 또 말다툼이 일어나 서로 마음이 크게 상한 어느 날 밤, 난 그만 형의 진심을 듣고 말았어. “엄마, 저 정말 원혁이가 너무 싫어요! 동생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든 줄 알고 형이 엄마께 불만을 쏟아내는 순간, 그만 커다란 못이 내 가슴에 탕!탕!탕! 박혀버렸어. 꼭 감은 내 두 눈에서는 어느새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 다음날 “엄마, 형은 저를 싫어하는 거 같아요.”라는 내 말에 순간 엄마가 화들짝 놀라시더니 잠시 뒤 형과 내 모습이 가득한 앨범을 보여주셨어. 사진 속에서 아주 작은 꼬마가 아기를 조그마한 품에 끌어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젖병도 물려주고, 팔베개도 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 하지만 전날 밤 들은 형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 마음 한가운데 큰 못이 아직 박혀있었나 봐.

그러다 며칠 전 놀이터에서 발목을 다쳐 엄마께 전화한 날, 형이 멀리서 치타처럼 달려왔어. 업히라며 등을 내주는 형에게 못 이기는 척 업혔지. 그날 형의 등은 바다처럼 넓고 포근했어. 무더운 날씨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집에 들어선 형은 막 도착한 아빠와 응급실로 향할 때도 따라나섰어. 병원에서 나를 잠시도 내려놓지 않고 업은 채로 걱정이 가득한 형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 남아있던 큰 못들이 한꺼번에 쭉 빠져버렸던 것 같아. 비록 그날 내 소중한 복숭아빠는 부서졌지만 형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단단해져서 마음만은 포근한 하루였어. 사실 그날도 형에게 고맙다는 말을 쑥스러워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형아, 고마워! 내가 형아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그리고 그날 다리는 많이 아팠지만, 형아가 업어줘서 너무 행복했어. 형아, 사랑해!

정원혁 | 대구장동초등학교 3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나를 위해 젊음을 내어주신 우리 아빠

To. 영원한 친구 아빠께

아빠 안녕! 저 아빠 딸 윤서예요. 학교에서 편지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빠가 생각났어요. 항상 고맙고 자랑스러운 아빠지만 그동안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편지로 써보려 해요.

제가 8개월 만에 나온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인큐베이터에 입원했었고 거기에 몸도 좋지 않았던 엄마까지 계셔서 마음고생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잘 이겨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아무 날도 아닌데 아빠께서 장문의 편지를 써주시곤 하시잖아요. 사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기분 좋고, 가슴이 쿵닥거리던지... 마치 연애편지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보다 윤서가 더 소중한. 아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기억해 주고 윤서 널 스스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다뤄주길 바란다. 김윤서는 이 세상에 단 한 명 밖에 없잖아.” 아빠께서 주신 편지의 한 구절이에요. 전 가끔 힘들거나 지칠 때면 아빠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곤 해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늘 일이 잘 풀렸거든요. 그리고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는 세계적인 이슈와 문화, 우리나라의 정치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제 사고력도 향상되는 걸

느끼곤 해요. 부서진 스마트폰의 액정을 몇 분 만에 멀쩡하게 수리해 주시고,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을 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수리해 주시곤 하시죠. 물이 넘치고 막힐 때도 형광등 불이 안 들어올 때 심지어 와이파이가 안될 때도 “아빠~”만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아무런 고마움 없이 그저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서울로 출장을 가실 때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큰 빈자리가 느껴지고는 해요. 눈에 보이는 않지만 공기가 있어 우리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 공기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듯 저 역시도 그동안 ‘아빠’라는 존재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 싶어요. 평소 아빠의 어눌한 말투, 개구쟁이 같은 행동들, 어른인지 아이인지 모를 아빠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왜 그러시는 걸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빠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철부지 어린이와 비슷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동안 아빠 스스로가 철부지 어린이가 됐던 걸 이제야 알게 되었고 그런 행동들이 세심한 배려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제 어렸을 때 찍었던 가족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에 있는 아빠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주름도 더 선명해진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계속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해요. 제가 해맑게 자랄 수 있도록 아빠의 젊음을 내어줬음을 이제는 알아요. 흰머리, 주름이 생긴 얼굴. 전 그런 아빠의 모습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기만 해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또 비바람과 햇볕을 가려주는 푸른 소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아빠께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값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아빠 뜻대로 항상 베풀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게요. 자랑스러운 아빠 딸이 될게요. 늘 곁에서 응원하고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영원한 아빠의 친구 윤서 올림

김윤서 | 전주남중학교 3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엄마의 사랑은 식지 않는 김치찌개

### 엄마께

엄마 안녕? 나 막내 딸 예주야. 내가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그치? 난 내가 평생 엄마 곁에 있어도 되는 어린아이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커버려서 너무 아쉬워. 난 엄마가 마냥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크면서 엄마에 대해 알아갈수록 엄마도 여린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 나도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거지만 엄마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거잖아. 엄마가 아빠 없이 다시 일어서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 나도 아빠를 정말 사랑하지만 엄마에겐 아빠가 첫사랑이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한 순간에 곁에서 떠나버렸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 엄마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온몸이 아프잖아. 엄마가 그렇게 아파할 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난 너무 슬퍼. 그저 엄마 곁에 있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밖에 못하는 딸이라 너무 미안해.

작년 겨울에 내가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거 도울 때 내가 가게에서 잠든 적이 있었어. 근데 식당엔 히터도 없어서 너무 춥게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너무 따뜻한 거야. 알고 보니 엄마가 나 추울까봐 김치찌개를 계속

데우면서 그 열기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거였어. 남들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난 그때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꼈어. 그 온기 말고도 나를 위하는 엄마 마음이 정말 가슴 깊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와닿았거든.

내가 작년에 학교 많이 빠지고 방황할 때 나를 믿어주고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때 한창 힘들었는데 난 안 힘들다고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나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매일 나를 혹사시켰어.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인 사고 회로가 멈추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때 엄마가 나를 다그치고 혼냈더라면 난 그 방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그저 나를 기다려주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줘서 너무 고마웠어. 나 6학년 때 왕따 당했을 때도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매일 밤 울었었어. 담임선생님이 대처를 정말 못해주셔서 애들 다 있는 앞에서 내가 왕따로 힘들어한다고 말했을 때 난 애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뛰쳐나가 학교 뒤편으로 숨어버렸어. 학교랑 집이랑 멀어서 친구 차를 탔어야 했는데 그 차를 탈 용기도 없어서 그냥 혼자 숨어있었어. 학교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나를 부르면서 걸어오는 거야. 난 순간 너무 안심이 되고 무서운 감정이 사라져서 엄마에게 뛰어가 안겼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엄마 가슴도 정말 아팠을 것 같아. 자기 자식이 왕따 당해서 집에도 못 가고 숨어있는 걸 보는데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어. 엄마가 학교에 오고 바로 전학을 가기로 해서 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엄마는 항상 힘들 때 나를 구해주는 영웅 같은 존재야.

나는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다들 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하면 불쌍하게 보겠지만 나는 엄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남부러울 게 없어. 엄마가 “사람들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주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서 후회 없겠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 맞아 나는 남들보다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이 정도로도 부족했다고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매일 말해도 부족할 만큼 엄마를 사랑해. 엄마가 나한테 사랑 준 만큼 나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난 정말 행복해.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돈도 많이 벌 테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행복할 미래를 생각하며 같이 이겨내자.

엄마 정말 사랑해. 항상 엄마 생각하고 엄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엄마 고마워요!

김예주(가명) | 오천고등학교 1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둘만 아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To. 웃음이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의 똥강아지 손준서입니다. “우리 똥강아지 왔나?”라며 늘 반겨주시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봄날처럼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 많이 편찮으셔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소나기처럼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너무 겁이 나고 걱정이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허허허, 준서야 괜찮다. 이 할아버지는 끄떡없다.”라며 자꾸 웃기만 하셨죠. 할아버지의 웃음 덕분에인지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이제 많이 건강해지셔서 5km나 되는 길을 산책하신다니 할아버지의 에너지가 예전처럼 펄펄 솟아나게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얀 벚꽃이 가득한 강가를 따라 걸으면 나도 팔랑팔랑 춤추며 떨어지는 꽃잎처럼 어깨가 으쓱으쓱 기분이 좋아져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한 번만 보아도 새, 나무, 꽃 이름을 그렇게 잘 아시나요? 금방 척척 알아맞히시는 걸 보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천재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감사편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갖고 싶은 것도 선물해 주셨어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하는 포켓몬 카드를 어떻게 아셨

나요?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짤! 하고 꺼내 저에게 주셨을 때 너무 기뻐서 하늘에 머리가 닿도록 펄쩍펄쩍 뛰었어요.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둘만 아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꾸중을 들어 독 안에 든 생쥐가 되었을 때도 할아버지는 “고마해라. 우리 준서가 앞으로는 안 그럴까다.”라며 저의 든든한 연합군이 되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저의 부탁은 ‘건강’입니다. 늘 슈퍼맨처럼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할아버지와 함께 강변을 산책하고 싶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22년 4월 30일

할아버지의 똥강아지 손준서 올림

손준서 | 대구들안길초등학교 2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이, 다독임이 제 마음의 반창고가 되어 주셨죠

To. 제 마음의 반창고가 되어주신 이은영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송이예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말이에요. 봄 햇살의 온기처럼 따뜻한 손을 내밀어, 차가운 얼음 같던 제 마음을 녹여주셨던 선생님...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사랑’이라고 느껴지던 행복한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왠지 제 귓가에 선생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송이가 벌써 6학년이 되었구나. 시간 참 빠르다...” 선생님께 저는 어떤 제자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제게 선생님은 무척 감사하고, 소중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그 날 그 일 이후로요....

돌이켜보면 3학년 때 저는, 친구를 참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은 아이에게는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마냥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들이 저를 먼저 멀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저를 따돌리자고 한 것이었죠. 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기분 나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아이들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일들까

지 오해가 되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혹여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 봐, 내가 잘못된 거라고 하실까 봐, 아이들이 비겁한거라고 하실까 봐 이런 저의 괴로운 마음을 부모님께는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급식실에 혼자 가야 된다는 것이 창피해서 급식도 먹지 않고 도서관에 가 있거나, 혼자 하교하는 것이 외로워서 엄마에게 학교로 데리러 오면 안되냐고 떼를 쓰기도 했죠. 그렇게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따가운 눈빛들을 견디고 참으며 버티다 집에 가면 폭발하듯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내 말투가 기분 나쁜 말투였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끊임없이 자책하며 내 말투나 내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저를 상담실로 부르셨고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외롭고, 억울하고, 속상했고, 서운했던 마음들을 선생님께 털어놓았죠. 그렇게 선생님은 제 마음속 깊은 웅덩이를 들여다봐주셨어요. 제 스스로 흙탕물을 일으켜 휘저어 놓은 웅덩이를 선생님께서 발견해 주셨던 날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을 거라며 선생님께서는 저의 조그마한 손을 꼭 감싸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눈을 마주 보며 침묵도 언어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이, 다독임이 제 마음의 반창고가 되어 주셨죠. 제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사과를 시켰을 테지만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의 행동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라는 선생님의 따뜻한 말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베이고 찢긴 상처는 계속 쓰리고 아프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지혜를 배워나가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죠. 그날 선생님이 저를 바라봐 주시던 눈빛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송이야, 사람마다 모두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야. 송이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금처럼 이유 없이 비난받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금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슬프고 화나는 일에 송이의 모든 마음을 줄 필요는 없어. 힘들고 슬펐던 일도 지나고 나면 동글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송이가 지금 이 시간들을 잘 넘기만 하면 송이를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씩씩하

게 이 시간들을 잘 넘겼으면 좋겠어....”

상담 이후 선생님은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자신 있었던 손글씨 공모전에 도전했고 우수상을 받게 됐죠.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조금씩 제 마음은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라났어요.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누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더라도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이해되는 날이 오다니 참 신기해요!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더 단단해졌나 봐요.^\_^ 왜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슬퍼했을까요? 지나고 보면 수많은 일들 중 하나였을 뿐인데 말이죠. 만약 그때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아이들과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지!” 하며 저희들을 억지로 짝 지워주셨다면 저는 아마 제 자신 스스로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반가움의 표현이지만, 고양이에게는 놀림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지내왔을거예요.

선생님, 저에게 이런 용기와 의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을 만난 건 제게 행운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디에 계시던 그곳에서도 저에게 보여주셨던 따뜻한 사랑의 기운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겠죠?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멋지고 씩씩한 송이가 될게요. 선생님도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제 감사한 마음이 선생님께 전달되는 그날까지요...^^

2022.04.25.  
제자 송이 올림

박송이 | 인천청일초등학교 6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할머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을 다 안겨줄게

To. 유채꽃 같은 우리 할머니

할머니 안녕 나 할머니동이 지윤이야. 잘 지내지? 봄 끝자락을 걸치고 번덕스러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할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는 요즘이야. 햇살은 뜨겁지만 여름을 좋아하는 나는 마치 초록으로 질어가는 여름 물결이 파도처럼 나한테 오는 것만 같아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난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게 많아. 할머니도 그렇지? 할머니랑 여름마다 수박화채도 만들어 먹었잖아. 내가 화채 먹고 있으면 옆에서 할머니가 수박씨 골라내주고 그랬는데.. 여름만 되면 가끔 그때의 공기의 냄새나 할머니랑 나누던 대화들이 생각나곤 해. 할머니랑 보냈던 여름이 너무 즐거워서 내가 여름을 가장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오늘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한 후에 포장한 그 선물을 전해 주지 않는 것과 같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난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 내가 제일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할머니잖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작게나마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글로 적게 됐어. 평소에는 말하기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내 진심 어린 말들을 끄적여보려고 해.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는 지금껏 내 삶의 기둥이 되어준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일을 하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던 날 오랫동안 돌봐줬잖아. 어깨랑 허리도 많이 아픈 우리 할머니.. 말썽쟁이 나 키우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어, 철없던 어린 시절엔 운동회나 공개수업 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온 거 보고 부러워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이해 못 한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미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 피우고 할머니를 너무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내가 맨날 말썽 피우고 할머니를 힘들게 해도 할머니는 항상 나 달래주고 보듬어줬는데 그땐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 할머니 덕분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참 감사한 것들이었다고 매번 생각해. 어찌면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던 어린 나를 할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준 덕분에 나도 이렇게 많이 성장한 내가 된 거 아닐까? 지금에서야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새삼 깨닫곤 해. 그땐 왜 몰랐을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다정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야. 나도 이제 커가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니 감사한 마음뿐이야.

며칠 전에 나 독서실 나와서 집 올 때 나랑 전화한 거 기억나지? 할머니

한테 내가 “나는 할머니 손녀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왜 사랑해?”라고 물었었잖아. 사실 그때 중간고사가 일주일 남았을 때인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거든... 더 잘하려고 욕심 내다보니 스스로한테 많이 실망도 하고 지쳤을 때야. 컨디션도 안 좋고 아침부터 밤까지 독서실에만 있다 보니 많이 우울했나 봐. 그때 할머니가 “길가에 민들레 한 송이 피어나면 꽃잎으로 온 하늘을 다 받치고 살 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전체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이야”라고 했었잖아. 그 말 듣고 많이 울었어. 지금 할머니가 예전처럼 날 직접 돌봐주진 않지만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내가 하루를 보내는데 많은 용기를 얻어. 그날도 할머니 말에 마음 다잡고 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었어. 요즘도 힘들 땐 할머니 생각 먼저 나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허리가 아파도 내가 업어달라면 매일 돈가스집에서 집까지 업어주던 할머니, 먹고 싶은 건 아낌없이 다 사준 우리 할머니...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날 사랑해 준 할머니 덕분에 내 어릴 때의 추억들은 할머니와 행복했던 일들로 가득해. 할머니가 날 돌봐주던 그때는 내가 어른이 돼서도 절대 못 잊을 거야.

난 요즘도 할머니랑 손잡고 산책하던 때가 가끔 그리워. 할머니가 노래

도 많이 불러줬잖아 ㅎㅎ 그땐 할머니 노래 못 부른다고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부르고 그랬는데 ㅎㅎ 생각하니까 너무 따뜻한 추억들뿐이네.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어릴 때 못해줬던 것들 이제 다 해줄게. 할머니가 나를 위해 애썼던 그 순간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할머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을 다 안겨줄게. 내가 다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천천히 늙어가줘요. 나한테 이 세상에서 할머니보다 소중한 건 없어. 사랑해

From. 할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손녀 지윤 올림

김지윤(가명) | 정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작

햇살 같은 선생님을 만나 제가 암흑기를 끝내고  
밝고 따뜻한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주신 따뜻한 온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빠의 비바람을 막아드릴게요  
소희하나 | 예당초등학교 5학년

친절한 마음을 베풀어주신  
90번 버스기사님  
김주연 | 원주삼육중학교 3학년

흉터 하나 없는 예쁜 손의 기적  
이수민 | 평산초등학교 6학년

고마워요. 우리 아빠라서  
주정민 | 의령여자고등학교 3학년

구름이 감싸 안는 포근함과  
따뜻함을 준 고마운 내 친구  
한시연 | 삼화초등학교 5학년

든든하고 소중한 우리 누나  
박은규 | 남평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주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래요  
구희지 | 전동중학교 3학년

사랑으로 항상 날 보듬어주신  
우리 부모님  
구현재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1학년

희망을 전해주는 누리호  
이시오 | 양지초등학교 6학년

우리 가족에게  
곧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이수민 | 영광여자고등학교 3학년

엄마, 평생 제 곁에 있어주세요  
유채경 | 인천사리울중학교 3학년

## 아빠의 비바람을 막아드릴게요

아빠, 저 희나예요.

감사편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아빠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아빠, 제가 벌써 5학년이 되었네요. 이제야 제 옛날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 1학년 때는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많았어요.

“넌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냐?”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친구들은 이렇게 놀리듯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가 슬퍼지곤 했어요. 제 피부색을 파키스탄 사람인 아빠를 닮아 친구들보다 검은 것이고 그건 친구들의 피부가 황색인 것처럼 당연한 건데, 우리 가족에겐 당연한 일이 친구들에게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니 저는 제가 정말 이상한 아이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저를 매일 놀리던 아이가 말했죠.

“넌 아빠가 외국인이어서 말도 안 통하고 싫겠다. 쫓쫓”

저는 쌓여있던 속상함이 몰려와 아무 말도 못 하고 집에 와서 펑펑 울어 버렸죠. 아빠는 우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희나야. 앞으로 친구들이 희나한테 아빠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 보면 터키 사람이라고 해.”

“왜요? 아빠는 터키가 아니라 파키스탄 사람이잖아요.”

터키는 옛날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도와줬고 한국 사람들이 ‘형제의 나라’라고 부를만큼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하는 나라라고, 아빠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터키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놀리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지요. 그때 저는 아무런 소용없는 거짓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울기만 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저를 지켜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어렸지만 이제 저는 어리지 않아요, 아빠.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저를 지킬 줄 알고 다행히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빠를 닮은 저의 까만 피부가 부끄럽지 않아요.

아빠, 그거 아세요? 가끔 행복하게 웃는 아빠의 얼굴에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생각해요. 아빠도 아빠의 엄마와 아빠가 그리우신가 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바쁘게 일하시느라 자주 뵙지 못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더 오랫동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죠. 피부색이 다른 우리 다섯 가족은 아빠의 이런 희생 덕분에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그 많은 일을 해 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겨울을 가로막고 서서 언제나 우리의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 저는 행복한 아빠의 딸 희나로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찾아 해 나갈게요. 그리고 아빠처럼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 나중에 제가 아빠의 비바람을 막아드릴게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다 같이 파키스탄으로 달려가요.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소헬희나 | 예당초등학교 5학년 | 경기도교육감상 수상작

## 친절한 마음을 베풀어주신 90번 버스기사님

To. 90번 버스 기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기사님의 넓은 마음 덕분에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었던 소녀입니다.

그 당시 저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어 무작정 멀리 떠나기 위해서 버스 요금을 내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원주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악착같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학교로 가고, 학교가 끝나면 또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가야 하는 한국 중학생의 평범한 일상은 그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저를 '미성년자'라는 틀에 가두고 있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겐 그들과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집이 있으며, 웃는 표정으로 반겨주시는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차고지를 출발하여 나가고 저는 버스 요금을 내려 하는 순간 저에게 남은 돈이 300원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사님께서 저에게

어린 학생이 이곳에 있는 이유를 물으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사님께서 저에게 괜찮다고,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버스 요금은 당신께서 대신 내실 테니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집에만 잘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기사님의 친절한 마음 덕분에 저는 이렇게 여유가 생겨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름도 모르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신 90번 버스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주연 | 원주삼육중학교 3학년 | 강원도교육감상 수상작

## 흉터 하나 없는 예쁜 손의 기적

기적을 선물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끝자락에 서서 뜨거운 햇살과 마주하고 있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비는 내리지도 않고 하루하루 더 더워지기만 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선생님? 지금도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보면 항상 손을 살펴보고 또 만지작만지작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는 표정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건 10년 전 선생님께서 저의 손을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 봅니다.

오래전이라 선생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전에 선생님께 왼손을 치료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자란 13살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만나시면 항상 제 손부터 살펴보십니다. 어느 날 그 이유가 궁금했던 저는 엄마에게 그 이유를 여쭙보았고 엄마는 제게 선생님의 존재를 그날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2012년 1월 말 제가 2살 때, 엄마와 할머니께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할아버지와 아빠께서 제가 부엌에 가지 못하도록 보고 계셨대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와 아빠를 피해 부엌에 있던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바닥

을 댔고 저는 그날 손바닥 거의 전체에 화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급히 찾아간 화상 전문병원에서 2살 아기인 저를 전신 마취한 후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걸 반대한 아빠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간 병원이 선생님의 병원이었대요.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깨끗이 치료하겠다고 당시에 불안해하고 슬퍼하시던 엄마, 아빠를 안심시키셨대요. 아빠가 출장을 떠나신 동안은 할아버지께서 엄마와 함께 저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던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꼭 깨끗하게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게 선생님의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은 지 20일, 정말 기적처럼 제 손에서 새 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통원 치료가 끝났고 완치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께 하신 약속대로 제 손은 작은 흉터 하나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해요. 만약 제가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흉터 하나 없는 예쁘고 깔끔한 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뵈 수 있다면 꼭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에게 기적 같은 일을 선물해 주신 선생님은 어쩌면 하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손에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주신 분들 중 한 분이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며 꼭 뵈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이수민 | 평산초등학교 6학년 | 경상북도교육감상 수상작



## 고마워요. 우리 아빠라서

To. 내가 제일 좋아했고 나를 제일 좋아했던 우리 아버지.

아빠 안녕- 이렇게 또 편지를 쓰네요. 감사편지라고 하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아버지 밖에 없네 ㅎㅎ 감사한다는 말을 못해줬던 나라서, 아빠를 좋아하지만 못난 딸이라 좋아한다는 말도 한번 못 해줬네요.

아빠- 나는 잘 지내요. 힘들지만 힘들지만은 않은 하루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빠가 사랑으로 키워준 18년이 너무도 소중한 그 기억으로 잘 살고 있네요. 사람은 힘든 기억이 아닌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었네. 나를 사랑해줘서, 애정으로 키워줘서 고마워요. 경상도 여자라 무뚝뚝하다는 핑계로 말도 툭툭 뱉고.. 항상 애정표현도 못 해줬던 딸이 이제야 철이 들어서 아빠와 함께 했던 한순간 한순간을 후회하며 살아요. 제일 후회되는 건 아빠겠지? 나 예쁘게 클게.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 꼭 이쁘게 웃으면서 아빠 보러 갈게. 비록 졸업식에 아빠 꽃다발 못 받았지만! 나는 괜찮아요. 괜찮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요. 못난 딸이라 후회한 것은 있어도 아빠 딸이라 후회한 적은 없다는 걸. 말로 표현은 못 해줬지만 누구보다 아빠를 좋아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요. 아빠 아프지 말고 아픈 날보다 웃을 날이 더 많길 바라요. 나도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은 하루하루를 살다가 예쁜 모습으로

예쁘게 웃으면서 아빠한테 달려가서 있는 힘껏 안겨볼게. 안겨서 너무 힘들었다고 많이 울었다고 투정도 부리고 못 해준 말 다 해줄게요.

아빠에게 닿지 않을 이 편지가 단 한 줄이라도 그냥 한 줄이라도 닿길 바래볼게. 아빠가 그리운 밤에 써 내려간 수많은 편지 중에 그저 단 한 줄이라도 아빠에게 닿아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을 덜어줄 수 있게 그렇게만은 해달라고 간절히 빌어볼게. 고마워요. 우리 아빠라서. 하루하루를 소중한 기억들로 채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생에는 조금 더 예쁜 딸로 태어나서 받은 사랑들, 애정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게 해볼게. 그러니까 아빠, 못난 딸이었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이 너무 어려웠던 딸이었지만 한 번만 더 우리 아빠로 태어나주라.

사랑해요. (이제야 말해주네 ㅎㅎ)

주정민 | 의령여자고등학교 3학년 | 경상남도교육감상 수상작

## 구름이 감싸 안는 포근함과 따뜻함을 준 고마운 내 친구

To. 나원

안녕? 나원아. 나 시연이야. 난 너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말로 전하기 부끄러워서 미처 전하지 못했어. 내가 감사한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에게 나의 감사한 마음을 꼭꼭 담아 감사편지를 써.

나는 작년부터 친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집에만 있어서 내가 많이 내향적으로 바뀌었어. 소심해진 성격 탓에 나는 친구들에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친구가 많이 없어졌다고 느끼기도 했어. 그런 나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공감해 주었어. 너와 대화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선 느낄 수 없는 구름이 날 감싸 안는 것 같은 포근함과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부모님께도 느껴본 적 없는 이 포근함과 따뜻함을 너에게서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어. 나는 나와 처음으로 관심사도 맞고 성격도 잘 맞는 네가 내 친구로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네가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소심한 성격 그대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지도 몰라. 네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울고 싶을 때는 나와 함께 있어주며 같이 슬퍼해주었고 내가 뿔 듯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

너는 같이 기뻐해 줬어.

나는 나와 감정을 나누는 네가 참 좋아. 너는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만들어 주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 네 덕분에 밝은 성격을 되찾은 나는 너의 모든 것에 감사해. 나를 기쁘게 해준 것, 감정을 나누는 것, 나와 대화해 주는 것까지도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정말 고마운 나의 친구로 남아줘. 네가 나 말고도 다른 아이를 도와주어서 나처럼 누구보다도 빛나는 아이가 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 친구를 많이 도와주도록 노력할게!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줘서 고마워!

한시연 | 삼화초등학교 5학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수상작

## 든든하고 소중한 우리 누나

To. 나와 가장 친한 우리 누나에게

안녕, 누나! 누나의 동생 은규야. 가끔 누나에게 짧은 편지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긴 편지는 처음이라 조금 부끄럽다... 누나, 언제나 나와 함께해줘서 고마워. 다른 애들은 자기 동생이나 누나, 형들이랑 많이 싸운다는데 누나는 그러지 않고 나랑 놀아주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줘서 고마워! 같이 갔던 라쿤 카페나 동물원도 정말 재미있었는데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또 같이 갔으면 좋겠어. 동물원에서 먹이주기 체험했을 때 기억나? 내가 거북이한테 준 먹이를 돼지가 다 먹어서 속상해했을 때 누나가 괜찮다면서 먹이를 잔뜩 사주었잖아. 덕분에 귀여운 알파카한테도 당근을 많이 줄 수 있어서 기뻐. 그리고 같이 자전거 타고 여행 갔을 때 내가 중간에 토해서 힘들었을 때 도와줘서 고마워. 자전거를 두 개나 끌고 집까지 걸어가는 누나를 보고 미안했어... 그래도 그다음에 우리가 가자고 했던 문암생태공원까지 같이 가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가는 길에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간 기차도 멋있었어. 누나 덕분에 멋진 로드 자전거도 잘 타게 돼서 좋아! 다음에는 누나가 얘기했던 국토종주도 같이 가자. 작년에 같은 반에 괴롭히는 애가 있어서 힘들었을 때 학교에 찾아왔었잖아. 한동안 학교 문 앞으로 날 데리러 와주었고, 그 뒤로 괴롭히는 애들도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많이 커서 먼저 싸움을 거는 애들도 없이 재미있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누나한테 얘기를 못했지만 나는 누나가 결혼 안 하

고 엄마 아빠랑 나랑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누나가 없으면 부모님이 바쁘실 때 혼자 있어야 하고 누나가 만들어주는 맛있는 요리도 못 먹잖아. 특히 누나가 해주는 떡볶이랑 우유푸딩은 정말 맛있어!

얼마 전에는 둘이서 다육이 농장에 가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맞춰 같이 다육이를 골라서 샀었지? 신기한 식물이 많아서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같이 가자. 누나 덕분에 재미있는 곳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아. 아는 게 많아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잖아. 앞으로도 나에게 많은 걸 알려주었으면 좋겠어. 누나 덕분에 학교 숙제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칼림바, 우쿨렐레 같은 악기도 연주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해. 내가 어릴 때 누나가 정성껏 키우던 리튬스도 터뜨리고 장난도 많이 쳤는데 그래도 항상 부르면 와주는 누나가 정말 좋고 고마워.

언제나 든든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우리 누나!

앞으로도 항상 내 옆에 있어줘!

귀여운 동생 은규가.

박은규 | 남평초등학교 5학년 | 충청북도교육감상 수상작

## 선생님이 주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래요

To. 김유림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희지요. 저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한 사람들은 정말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지금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상장이나 태양장은 물론, 받아쓰기나 단원평가도 무조건 백 점을 맞아야 했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회장을 했던 1학년을 제외하고는 5년 내내 학급 회장을 하고, 전교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매우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그런 저를 가로막은 것이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접한 ‘과학’이라는 과목은 저에게 외계어처럼 느껴졌고, 한번 기초를 놓치니 따라갈 수 없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과학은 100점은커녕 그 언저리에 있는 점수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저의 아킬레스건이자 약점이 되었습니다. 욕심은 많은데 잘 해내지 못하니 항상 긍정적이었던 저는 자기혐오를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동중학교에 입학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은 초등학교 과학보다 훨씬 어려웠고, 과학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할 때쯤 선생님이 기초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셨고, 선생님의 예쁜 얼굴을 보려 가벼운 마음으

로 보던 영상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학교 과학수업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항상 재밌는 이야기와 과학 개념을 엮어 설명해주시고,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 보충 수업을 해주시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과학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수업 내용이 이해가 가니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과학 시간마다 자던 저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과학’이라는 장벽을 극복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맛 볼 수 있었고, 저는 다시 밝고 명량한, 자신감에 차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춘기가 일찍 왔던 것 같은데, 중학교 1~2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중2병이라 불리는 사춘기가 끝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지난 중간고사에서 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 올백 맞았어요. 저는 이제 ‘유림쌤처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주셨던 <기본유기화학 전공서적>도 어렵지만 꾸준히 읽고 있어요. 헛살 같은 선생님을 만나 제가 암흑기를 끝내고 밝고 따뜻한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3명의 귀인을 만난다고 하는데, 제 귀인 중 한 분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주신 따뜻한 온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년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2022.06.10.

선생님의 영원한 제자 희지 올림

## 사랑으로 항상 날 보듬어주신 우리 부모님

To.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의 보물 현재예요! 지금 이 편지는 제가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께 감사했던 일들을 쓴 편지예요. 사실 엄마 아빠께 감사했던 일들은 이 편지지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수 없지 않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고, 그 순간들에 대한 지금의 저의 생각과 심정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 편지를 씁니다.

엄마, 혹시 제가 11살쯤에 참여했었던 백일장 쓰기 대회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그 대회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제에 맞는 좋은 글이 생각나지 않고, 날은 더워서 너무 짜증이 나 괜히 엄마께 화내고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꾸짖으며 '자신이 하기로 한 일에 책임져라. 끝까지 해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툭툭대면서도 제한시간 직전까지 열심히 글을 써서 백일장을 완성시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제가 잘못된 일인데도 저에게 화내서 미안하시다면서 간식을 사주시고 저와 화해했죠. 단 하루에 있었던 짧은 일들이었지만 저는 그날이 크게 기억에 남아요. 만약에 그날 엄마께서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제가 포기하려고 하는 걸 막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날 일을 뒤로 저는 제가 도전한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됐어요. 비록 상을 타지 못했고, 남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어렸던 저에겐 또 하나의 가치관이 형성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전한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저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어 주시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엄마 덕분이예요. 엄마 그날 못났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를 위로하고 칭찬하며 보듬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께는 제가 정말 감사한 일도 죄송한 일도 정말 많아요. 특히 제가 사춘기 시기였던 중학교 때 한참 예민하던 시기여서 엄마 아빠께 버릇 없이 행동을 정말 많이 했었죠. 그때마다 아빠께서는 저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시면서 제가 다음번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를 크게 혼내시며 훈육하셨죠. 그 당시 저는 저의 잘못은 알고 있었지만 괜한 자존심과 오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아빠께 화를 내고 아빠께서 상처받으실만한 심한 말을 하면서 자식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참 많이 했죠. 당연히 그 뒤에는 아빠께 굉장히 크게 혼쫓이 났죠. 근데 이런 사건들 중 유난히 제

가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다음날까지 아빠를 피해 다니며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한 날이 있었어요. 저는 화도 났지만 아빠와의 사이가 영원히 틀어지는 줄 알아서 무섭고 슬펐어요. 그날 아침 저는 방학이었어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아빠랑 엄마는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전날의 일로 잔뜩 우울해져 있었던 제 마음에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리는 아빠와 엄마의 대화중 아빠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깊게 박혔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 새끼니 미워할 수 없지. 저런 행동들을 현채가 누굴 보고 배웠겠어. 다 부모 탓이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울컥했어요. 나는 아빠에게 그렇게 못되게 대했는데, 내 잘못된 생각도 안 하고 아빠를 미워하기만 했는데, 아빠는 저를 미워하기는커녕 자신을 탓하셨어요. 솔직히 이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께 죄송하고 이런 못난 딸을 미워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점심에 회사에 출근하신 아빠는 집에 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시고 어제 미안했다고 제게 사과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걸 참으면서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죠. 이날 이후로 저는 아빠 엄마와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빠는 이 편지를 읽으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때 아빠의 말을 들었다는 걸 모르시겠죠. 아빠께서 직접 제게 한 말씀은 아니시

지만 아빠의 그 뜻깊은 한마디가 저의 길고 힘들었던 사춘기가 끝나가는 계기가 되어 저를 한 걸음 더 성장시켜 주셨어요.

아빠, 가끔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딸인 저를 미워하지 않아주시고 아직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중학교 때의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훈육해 주시고 저를 달래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마 아빠께 감사했던 순간은 이 편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지만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해요. 슬프고 화나고 힘들어 우울할 때 언제나 제 곁에서 저의 감정에 공감해 주시며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세상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숨을 쉬며 제 곁에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풍경, 감정 등 모든 게 저에겐 소중한 보물이예요.

마지막으로 구현채라는 작은 생명에 어머니 아버지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구현채 |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1학년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희망을 전해주는 누리호

To. 누리호 연구진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양지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누리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2022년 6월 21일은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누리호가 날아가는 순간부터 두 손 모아 기도했고, 우주에 무사히 안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 저는 누리호의 성공이 있기까지 12년 3개월간의 연구일지를 찾아 보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선생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 마음을 전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이렇게 감사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문학을 좋아해서 천문대를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교육과정을 마쳐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시간들이지만, 제가 좋아했던 에디 선생님과 친구들과 천체 망원경으로 별과 우주를 함께 공부하던 그 밤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리호가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주의 소식을 전해 주겠지요. 그 순간들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해

서 누리호를 성공 시키신 선생님들처럼 나라에 빛이 되고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학교를 가야 하는 월요일이지만,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추었습니다. 태양계 행성을 일렬로 볼 수 있는 날이라 하는데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디선가 함께 보고 계시겠지요? 감사의 마음과 8월 다 누리호의 성공을 기원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6.

이시오 올림

이시오 | 양지초등학교 6학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상 수상작



## 우리 가족에게 곧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To. 부모님

일이 바쁜 와중에도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같이 가주시고, 아플 때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단 신체적으로 아프지만 그 누구보다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살면서 크게 죄짓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지?'라고 말하며 세상을 원망하던 저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눈물을 펄펄 흘리던 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가슴 아프셨을 텐데 제 앞에선 그런 모습 없이 예전과 똑같이 저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요즘 저에겐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어요. 그동안 부모님에게 상처만 드린 것 같아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추억만 남겨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대로 몸이 안 따라주지만 금방 회복해서 부모님께 사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에게 시련이 한 번쯤은 찾아오지만 저에겐 빨리 찾아온 만큼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부모님께서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무엇보다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행복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거예요. 부모님 항상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From. 딸 올림

이수민 | 영광여자고등학교 3학년 | 경상북도교육감상 수상작

## 엄마, 평생 제 곁에 있어주세요

To. 나의 영원한 이상 '박성희' 엄마

엄마, 저 엄마의 비타민 채경이에요! 항상 가족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해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질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채경이는 엄마가 없다면 어떨 것 같아?”

어렸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없이는 절대 못 살아!”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도 엄마가 왜 그런 걸 물으셨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엄마가 없어졌어요. 매일 아침에 저를 깨워주던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침밥에는 꼭 빠지지 않았던 과일도 없었어요. 학교에 다녀온 이후에서야 엄마가 유방암 때문에 병원에 가신 것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힘든 걸 힘들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던 엄마가 암이라니..! 사실 처음에는 암이 죽을 수 있는 큰 병이란 것을 몰라서 금방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달 동안 집에 오시지 않으셔서 혼자 몰래 울어버린 적도 많았어요. 한참을 못 보고 마침내 엄마가 있는 병원에 갔을 때는 너무 울컥했지만 눈물을 억누르며 참았어요. 그 때로부터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도 병원을 오가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한참 동안 우울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는 이런 저보다 더 힘들겠죠. 아직 아프데도 집안일

은 다 도맡아 하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깨워주시는 것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는 거 알아요. 학교에서 친구 없다고 시험 보기 싫다고 항상 투덜대는 것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엄마 비타민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항상 노력하시는 거 알아요. 가족 중 아무도 몰라도 저는 알고 있을게요. 엄마도 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착하고 예쁜 딸로 계속 있을게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말고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From. 하나뿐인 엄마 작은 딸 채경 드림

유채경 | 인천사리울중학교 3학년 |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아빠 말씀처럼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모두 아빠의 마법이었어요.



이집트 국적을 가진  
우리 여섯 명의 가족  
임로해미 | 이리남초등학교 5학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행복한 미소  
김은정 | 구암중학교 3학년

아버지, 이젠 제가 기둥이 되어드릴게요  
김지민 | 가람중학교 1학년

나의 영원한 이야기꾼 할아버지!  
고건호 | 대전글꽃초등학교 6학년

사랑이 넘치는 1학년 5반!  
최예린 | 화암중학교 1학년

아빠는 딸바보, 나는 아빠바보  
주아연 | 용인백현초등학교 6학년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나의 과거  
김서진 | 강원고등학교 3학년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이  
가득 담긴 할머니의 김치전  
주아현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2학년

할머니는 내 짝꿍  
최유담 | 영평초등학교 1학년

내 친구 선아의 따뜻한 위로  
고린세스(가명) | 서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손예진 | 센텀초등학교 6학년

엄마, 내가 더 크면 우리 꼭  
행복하게 삼계탕 먹자. 사랑해  
서아진 | 서울대길초등학교 5학년

## 이집트 국적을 가진 우리 여섯 명의 가족

To.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둘째 딸 해미예요. 그동안 부모님께 편지를 여러 번 쓰긴 했는데 제 진심이 잘 닿지 않은 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께서 저희 4남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예요. 생각해 보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와서 이집트 국적을 가진 우리 여섯 명의 가족이 생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떠올려보면 한국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 사귀는 일처럼 다른 친구들에게는 쉽고 간단한 일이 저에게는 항상 어렵기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가?’ ‘우리 가족은 다시 이집트로 언제 돌아갈까?’ ‘나도 친구들처럼 소시지, 라면이 먹고 싶다.’ ‘나도 1박2일 체험 학습에 가고 싶다.’ 정말 많은 일들이 저에겐 늘 고민이었어요.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곁에서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엄마, 아빠가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편지를 쓰다 보니 어른이시고 우리 가족을 이끄신 두 분이 저희보다 훨씬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두 분이 낯선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셨겠죠? 거기에는 저희 4남매가 있잖아요.

작년에 태어난 넷째 아이나 그리고 다리가 조금 불편한 셋째 미두까지... 아직도 한국말이 저희보다 서투신 엄마께서 외로워하시고 이집트의 가족들을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엄마, 아빠께 효도하지 못하고 투정 부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집에서 우는 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학교에 가기 싫다는 저에게 “괜찮아, 친구들도 널 좋아할 거야”라는 말로 용기를 주신 아빠 덕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후론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고, 가까워진 것만 같더라고요. 아빠 말씀처럼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모두 아빠의 마법이었어요. 또, 한국어와 이집트어 사이에서 힘든 제게 엄마가 해주셨던 마법도 참 신기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모두 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으로도 충분해.”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또 정말 괜찮아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저를 지금까지 예쁘게 키워주시고 한국에서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부모님 덕분에 저와, 언니, 미두와 아이나까지 이렇게 쑥쑥 크고 있어요. 앞으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둘

째 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되네요. 한국에서 생활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지금처럼 제 곁에서 응원해 주세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가족 지금처럼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2022년 6월  
둘째 딸 해미 올림

암로해미 | 이리남초등학교 5학년 | 전라북도교육감상 수상작

#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행복한 미소

To. 조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 손녀딸 은정이에요. 편지를 써보는 게 거의 3년 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글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학교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딱 듣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러 가서, 혼자 있을 저를 걱정하시며 거의 매일 저를 돌보아주신 게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의 롤 모델이자, 식물 박사이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종종 지칠 때, 하려는 일이 잘 안될 때, 할아버지께서 제게 토마토 모종을 같이 키워보자고 하셔서 3달간 애지중지 키우고, 결국에 그 토마토가 시들게 되었을 때 슬프게 울던 저에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사랑도, 사람도, 너에게 앞으로 닥칠 시련마저도 말이지.”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었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16살인 제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멋진 말이 됐네요. 8살, 영원을 염원하던 어린 저는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을 조금은 이해한 아이가 되었어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신 든든한 제 편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제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내 의견을 말하는 법 등 정말 할머니의 생애에서 배울 점들만을 꼽아서 저에게 알려주셨었죠. 사실 그런 것이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어릴 때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서 듣고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지금 와서 드문드문 기억이 날 때마다 사람에게 데어서 상처받으 나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짓는 가장 행복한 미소는 할아버지의 조언, 할머니의 격려가 담긴 가장 아름다운 미소인 것 같아요. 제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손녀 은정 올림

김은정 | 구암중학교 3학년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아버지, 이젠 제가 기둥이 되어드릴게요

To. 사랑하는 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아버지. 무수한 생명이 피어나는 봄이 지나가고 푸르른 여름이 다가오네요. 항상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 이 편지로 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5살쯤에 어머니를 잃었을 때 어렸던 저는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가 충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서 오랫동안 못 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조금 더 자라고 생각이 피어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께서 여행을 언제 끝내고 돌아오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께서 항상 “아빠도 잘 모르겠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는 행방불명이라는 애매모호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심지어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목소리는 어떤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성장하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아버지가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엄마가 없냐고. 그때 아버지께서는 앨범을 챙겨와서 저에게 하나하나 사진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세 명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

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더 지나서 초등학교 6학년 저는 편지 한 장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행방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행을 가신 것도 행방불명도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저를 두고 반려자를 잃은 아픔을 이겨내야 했던, 울지도 못하셨던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진 않았습니.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서. 그 슬픔도 모르고 짜증만 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들을 전하자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셨고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꿈에 대해 생각했고 세계 일주라는 멋진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셨던 아버지. 저를 항상 버티게 해주셨던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탱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은 잘 안 하지만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22.05.06. 딸 지민 올림

김지민 | 가람중학교 1학년 | 부산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나의 영원한 이야기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나의 영원한 이야기꾼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보면 항상 사계절이 떠올라요. 할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옆에서 사계절 동안 계시며 저에게 재밌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할아버지께서 제 곁에 먼지처럼 사라져 계셨어요. 저는 그때 책에서 읽었던 ‘아몬드’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고 미안했던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 기분 말이죠. 그래서 사계절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슬퍼했던 ‘저의 영원한 이야기꾼’ 할아버지께 저의 못다 한 사계절의 그리운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고이고이 편지를 써보려고 해요.

2021년 12월 즈음 때였죠. 할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이야기꾼이 되어 사계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 할아버지와 같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런 일상이 싫고 창피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가는데 ‘나만...’이라는 생각이 제 자신을 진정으로 창피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옆에 할아버지께서 있는 듯 혼자가 아닌 ‘단둘이’ 걸어가는 것처럼, 진정으로 창피한 모습을 한 제 자신과 함께 걸어가니 오히려 제가 그때의 할아버지가 된 듯이 제 자신이 진짜로 창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이상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재밌는 옛날이야기를 되새겨볼까 해요. 할아버지께서 특히 할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고생한 흔적들과 이야기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어준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참회하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죄송해하는 마음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할아버지가 너에게 그동안 창피함을 느끼게 해준 것이 너를 더 미안하게 한다. 그러나 남을, 나를 미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게요. 그러니 더 이상 걱정 마시고 이제 아프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이야기꾼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손자, 건호 올림.

고건호 | 대전글꽃초등학교 6학년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사랑이 넘치는 1학년 5반!

To. 우리반 친구들

5반 친구들아 안녕!! 나 예린이야~

2022년 3월 2일 중학교 첫 등교 날, 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었어. “위잉-” 전동 소리와 함께 커다란 휠체어에 앉은 내 모습을 보고 많이 신기해하진 않았니? 난 새로운 학교생활 생각에 전날 잠을 푹 자지도 못하고 등교를 해서 한쪽 눈 쌍꺼풀이 풀렸었다다ㅋㅋ.. 난 모든 게 낯설었던 학교생활이 솔직히 3월엔 조금 힘이 들어서 하교 후 다음날 등교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했어. 그런 날 제일 가까이에서 본 엄마께서는 “우리 예린이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셨을 때 난 바로 “아니요..!”라고 했었지.. 초등 생활과 너무 달랐고 낯설기만 한 학교생활이 날 너무 움츠려들게만 했었거든..

3월 첫날 나에게 다가와 준 창현 고마웠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해주며 말 걸어줬던 거, 기억나니?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수업 시간에 완수의 개그스러운 장난 섞인 말투에 가끔 웃기도 하고 어른스럽게 든든하게 대해주는 수빈이, 조금은 티프하지만 나에게 부드러운 비건이 그리고 시현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슬슬 적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난 몸이 불편해서 5반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또래 도우미 선정 때 솔직히 아예 모르고 지내왔던 현주, 그리고 윤이. 너희들 역시 날 모르기에 서로 많이 어색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한마디 말도 못 하는 날이

많았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서 내 마음을 잘 알고 척척 도와주는 모습에 그저 고맙고 또 고맙고 고마워..! 중학교 첫 시작한 3월은 마음도 몸도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의욕이 없었지만 지금은 5반 친구들 덕분에 많이 웃고 그러면서 적응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편지에 우리 반 모든 친구들에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울 뿐이야..^^; 내 편지에 이름이 없다 해서 내가 그 친구들에겐 고마운 마음이 없는 거 절대 아님을 알아주길 바래! 한 명 한 명 다 쓰면 글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 이해해 줘.

5반 친구들!! 날 다른 시선으로 보고 대하지 않고 모두 같은 친구처럼 마음 편히 대해주고 내가 말하기 전 미리 내 상황을 읽고 먼저 도와주고 다가와 줘서 정말 고마워~ 힘들었던 3월은 어느새 내 머릿속엔 추억으로 남아있고 5반 친구들 덕분에 난 지금 학교생활 너무 잘 지냄에 다시 한번 더 고맙고 나도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할게!! 친구들~ 지금처럼 1학년 생활 잘 부탁해♡

2022.05.02

예린이가 5반 친구들에게♡

최예린 | 화암중학교 1학년 | 울산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아빠는 딸바보, 나는 아빠바보

To. 아빠는 영원한 딸바보, 난 영원한 아빠 바보

아빠 안녕! 나 하나뿐인 딸 아연이야. 아빠에게 갑자기 편지를 쓰니 어색하지만, 내 진심을 담아 쓰고 있어. 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벌써 2년이 넘도록 기승을 부리고 있네.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데 아빠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 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웃음을 보일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치?

아빠! 사실 이 편지를 통해 고백하고 싶은 게 참 많아. 사실 내가 또래보다 키가 좀 작은 편이잖아? 전에는 키가 작은 게 부끄럽기도 하고, 왜 나만 키가 작은지 속상하기도 했어. 근데 이젠 안 그럴 거야. 아빠가 항상 나에게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마음을 가지면 그로써 아빠가 죄책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젠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지?’보다는 ‘난 키가 작지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해.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키도 많이 클 거야!’라고 생각할 거야. 난 키가 아닌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니깐. 그러니 아빠도 날 응원해 주며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않으면 좋겠어!

아빠, 내가 아플 때 아빠도 같이 아파해준 것처럼 나도 아빠가 아플 때 많이 슬프고 아파. 아빠가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 아빠의 몸이 붓고 빨개지는 걸 보니 아빠가 많이 아프진 않을까

걱정되었어. 아빠가 밤마다 끄끙대고 아파도 참는 걸 보니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무 싫을 때도 있었고 많이 미안했어. 다행히 아빠가 잘 회복해서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 이제 아빠가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아빠가 건강해져서 나랑 놀이터에 나가 축구도 같이 하니깐 너무 재밌고 행복해. 아빠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난 고맙고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 그것이 바로 내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고! 아빠가 혼낼 때는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다 혼내고 나서 미안하다며 날 안아주고 우는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고, 내가 공부를 할 때면 머리를 쓰담아주며 응원해 줘서 고마워. 그럴수록 난 더 힘을 내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인가 봐. 되게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옆에서 있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정말 힘을 내게 해주는 것 같아. 아빠, 이젠 아프지 말아줘. 만약 아프더라도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리고 이제는 딸바보가 아닌 아빠 자신을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어. 이젠 내가 아빠 바보할 차례니깐! 고마워, 사랑해, 영원히~♡

앞으로의 아빠바보 아연이가

주아연 | 용인백현초등학교 6학년 | 경기도교육감상 수상작

##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나의 과거

To. 나의 과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할 때, 나는 여러 사람이 떠오르기도 여러 사건들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기쁨도 많고 슬픔도 많은 그런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과거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먼저 나의 다리에게 감사를 표한다. 간호사의 실수로 신경이 망가져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오른쪽 다리는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를 쉴 수 있게 도와주었고, 멀쩡히 잘 자라주었다. 나는 멀쩡하지 않지만 잘 버텨온 다리에게 감사한다.

두 번째로는 그런 다리를 원망하던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어머니께 감사를 전한다. 어린 마음에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다리가 원망스러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할 수 없었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께서 한마디해 주셨다. “걸을 수도 있고, 공도 찰 수 있음에 감사하자. 너보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세상은 초등학교라는 작은 곳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점점 커가면서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왔다. 나의 세상이 점점 커지며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났고 여러 아픔들을 보았다. 심장병이 있어 병원에 있던 아이,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이, 신체의 아픔만

이 아니라 정신적 아픔들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세상에서 나만 남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르고,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간다. 어머니는 그것을 내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런 어머니께 감사한다.

나의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좋아한다. 그렇기에 나는 나의 과거에게 감사한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김서진 | 강원고등학교 3학년 | 강원도교육감상 수상작

#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이 가득 담긴 할머니의 김치전

To.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아현이에요! 할머니께는 처음 써보는 편지인 것 같아요. 조금 떨리기도 하고, 제 마음을 글로 꼭꼭 담아볼 생각에 설레기도 해요.

어제는 비가 와서 집에 내려가는 길에 혼자 김치전을 사 먹었어요. 비를 보며 혼자 멍하니 먹다 보니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내가 배고프다며 찡찡대면 벌떡 일어나 김치전을 해주셨던 할머니. 김치를 가위로 동강동강 내어서 5분 만에 만들어낸 김치전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내 마음 작은 텃밭에 심었더니 솜솜이 예쁜 민들레들이 피어 여러 곳으로 날아가 또 다른 꽃을 피우고 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어느 곳에서든 예쁘게 피는 민들레처럼 사랑을 나누려 열심히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우뚝이 바람을 맞아도, 파도가 쳐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에게 처음으로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을 알려준 할머니 덕분이에요.

나는 거센 바람도, 강한 햇빛도, 부딪히는 다른 이들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겐 그들이 되어주고, 산소같이 꼭 필요한 것들을 조건 없이 선물해 주는, 높고 두꺼운 뿌리 깊은 소나무!

하늘이 내리는 비처럼, 맛있는 김치전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맛보기 힘든 김치전이지만, 그날 할머니의 김치전엔 평생 기억해야 하는 사랑과 믿음, 저 넓은 먹구름 떼를 감쌀 커다란 우산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되새길 거예요. 자글자글한 할머니의 눈주름, 내리는 비처럼 많이 내렸을 할머니의 눈물,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기까지 느꼈을 아픔까지. 할머니의 모든 게 내가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행복할게요. 평생 기억할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제 이름은 아‘현’이에요.^\_^)

손녀딸 아연이가(아현)

주아현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2학년 | 충청북도교육감상 수상작

## 할머니는 내 짝꿍

To. 할머니께

안녕? 내 짝꿍. 할머니. 여름이 되어서 날이 더운데 잘 지내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7월부터는 영어를 배울 거예요. 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할머니가 ㄱ, ㄴ, ㅁ, ㅇ, ㅂ, ㄷ, ㅌ, 한글 물고기를 만들어서 낚시 놀이를 하면서 글자를 만들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재밌게 한글을 가르쳐준 덕분에 한글을 잘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할머니랑 같이 살 때 참 좋았어요. 밤에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우면 컴컴해서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내 옆에서 꽃게 놀이도 해주고 솜사탕 노래도 불러줘서 재밌게 잘 수 있었어요.

오늘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초록 터널을 지나가니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봄에 벚꽃이 피어 분홍 터널 지날 때 할머니랑 솜사탕으로 콧수염도 만들고 바람이 불어 사랑살랑 벚꽃을 잡았던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제주도에 놀러 왔을 때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같이 살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공부할 때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 살까지 오래오래, 나랑 같이 오래 살아요. 사랑합니다♡

할머니의 단짝 유담이 올림.

최유담 | 영평초등학교 1학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수상작

## 내 친구 선아의 따뜻한 위로

To. 나의 소중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 선아에게

선아야, 나의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해? 나는 너 무 생생하게 기억나. 너와 친구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처음 알게된 날 나와 너는 인터넷 상에서 만났었지. 그때는 우리가 초등학생이었던 날이었어. 나는 널 몰랐었고 넌 날 알고있었지. 네가 나에게 말을 먼저 건네주고 다가와줬기에 난 너에 대해 알게 되었어. 이 날을 이후로 나는 인생에 크고 높은 길을 건너게 되었어. 네가 날 존경하고 나를 위해 좋은 말을 건네주었던 나날들이 다 기억나. 지금도 너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날 기쁘게 하는 말만 해주는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2년 전이었나? 내가 큰 일을 저질렀던 때가 있었잖아. 그 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깊게 반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었잖아. 나는 이런 내가 싫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음이 진정되는 노래를 들으면서 겨우 잠들었었어. 사실 너에게 나의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어. 네가 너무 소중한니까 나를 알게되면 날 싫어하고 날 바라보지 않을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네게 말해야만 할 것 같아서 큰 용기를 내어서 너에게 말했었지. 내가 생각했던 말과는 너무나도 먼 말이 왔

어. 너는 날 응원하고 위로하고 앞으로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버팀목이 될 만한 말을 해주었어.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따뜻한 말을 들어서 두렵기도 했었어. 근데 내가 또 다시 자존감이 낮아질 때쯤 넌 날 위로 올려주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저 날 안아주기도 했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지만, 난 지금도 그 날 너에게 말한걸 후회하지 않아. 나조차도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했는데, 난 너에게 큰 감정과 위로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 타인에게 듣는 위로가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너무 고마워. 네가 나에게 다가와주지 않았더라면 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난 그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너는 나의 유일하고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사랑해, 친구야. 너에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꽃길만을 걷도록 나도 보답해줄게.

고린세스(가명) | 서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 충청남도교육감상 수상작

##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To 정희정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스승의 날을 기념해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요. 첫인상은 굉장히 엄격하고 조금은 무서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 무척 친절하고 꽤 너그러운 성격이어서 놀랐어요. 또,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듯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동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사회 공부의 재미를 위해 1인 1역을 직업으로 바꿔 학급을 작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대단했어요. 그저 직업에서 그치지 않고 통장을 나눠주고 월급을 매달 주고, 그 돈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직업 중 하나인 도매상에게 과자를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사 월급에서 월세가 덜 깎이도록 할 수도 있고, 나라에 세금도 쌓이고... 전부 선생님께서 힘드신 일인데 선택하신 게 존경스러워요. 선생님이 전부 계산해서 학생들에게 월급과 실수령액도 알려주시고, 직업 제안서를 받아 직업도 새로 정하시고, 과자 살 돈을 사비로 충당하기도 하며 학생들이 세금 때문에 짜증 내는 것도 다 받아주시잖아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돕는 것은 의무이지만,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저희에게 책임감이나 소비에 대해 가르쳐주시는 것이 대단해요.

또 항상 아침에 책을 읽다 10분 정도 명상을 하는데, 명상일지까지 직접 체크하고 독서록처럼 확인하는 게 힘드실 텐데 저희를 위해 명상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외에도 항상 민주적으로 학급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굉장한 것들도 많지만 편지에 담아내기는 너무 많은 내용이네요. 항상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저희를 위해서라면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남은 2022년까지 멋진 학급을 만들어 나가요!

손예진 | 센텀초등학교 6학년 | 부산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엄마, 내가 더 크면 우리 꼭 행복하게 삼계탕 먹자. 사랑해

To. 정말 사랑하고 고마운 엄마

엄마, 안녕? 나 아진이야.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조금 축스럽네. 하지만 나는 이 편지로 그동안 머뭇머뭇거리서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엄마한테 전해줄 거야.

꼭 5년 전 일이야. 할로윈이어서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여준다고 했었어. 방송댄스에서 과자 파티를 한다고 해서 전날에 사 두었던 과자를 꺼내러 물이 끓고 있던 냄비 아래에 있는 찬장을 열었는데 조금 흔들렸나 봐. 끓는 물이 나한테 쏟아졌고 나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 7살 어린 나이에 너무 놀라서 많이, 진짜 많이 아팠는데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엄마.... 엄마....”만 말했어. 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딸 주위에 물이 흥건하게 쏟아져 있고 살갓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으니 엄마도 얼마나 놀랐겠어. 엄마가 뛰어와서 물웅덩이에서 나를 빼내줄 때 엄마도 발에 심한 화상 입었잖아. 난생처음 보는 엄마의 심각한 표정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떨어져 나가는 살갓을 하나 붙잡아 애써 웃으며 말캉말캉해서 좋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대답 없이 나에게 뿌리던 물을 더 차갑게 틀기만 했어. 곧 구급대원들이 왔고 난 병원으로 실려갔어. 입원을 한 후부터 아침에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엄마가 숨죽여 우는소리였어. 그 소리를 들으면 자는 척을

했어.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엄마는 내 앞에서는 항상 밝고 유쾌해 보였어. 하지만 엄마의 속마음은 다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는 상처가 심각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큰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했어.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시술도 받아야 했지. 엄마가 가진 무거운 짐, 다 알아. 아빠랑 둘이서만 들면 무겁잖아. 나도 같이 듣자.

엄마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도 화상 입었잖아. 울지 마. 왜 나 때문에 울어.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엄마, 너무 고마워. 힘든 상황이었는데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여전히 사랑해 줘서 고마워. 나도 짐을 같이 나눠들 수 있는 믿음직한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 성인 돼서 수술받고 나면 우리 가족 모두 지난 일들 잊고 삼계탕 먹으며 과자 파티 하자.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하는 아진 울림

서아진 | 서울대길초등학교 5학년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수상작



넌 항상 나에게 웃음버튼 같은 친구야.  
네가 나를 향해 올 때면 나는 비타민을 먹은 것 같이  
힘이 나고 웃음이 나.



너는 나의 비타민,  
나는 너의 나무  
남규민 | 영훈초등학교 4학년

가끔은 나비가 되어 찾아와줘요  
강채원 | 동탄고등학교 2학년

소중한 나의 친구, 혜원이  
김태연 | 김해서중학교 1학년

신념과 용기를 알려준 김구 선생님  
전태혁 | 조봉초등학교 6학년

아빠에게 따뜻한  
위로의 노래가 되어드릴게요  
이채현 | 이곡중학교 3학년

저의 생각과 마음을  
180도로 바꾸신 선생님!  
김시현 | 천안신방중학교 1학년

나는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알아  
이채원 | 소담고등학교 2학년

정말 대단한 우리 엄마, 사랑해요!  
신서연 | 광주동신여자중학교 3학년

작은 틈 사이에서 피어난 꽃  
김보민 | 여도초등학교 6학년

언제나 엄마 앞에서 환하게  
웃는 예쁜 막내딸이 될게요  
김미현 | 가좌고등학교 1학년

빙판길 사고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연우 | 순천왕윤중학교 3학년

선생님은 나의 이정표  
이채연 | 원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 너는 나의 비타민, 나는 너의 나무

행복 비타민 같은 존재 내 친구 윤우에게

윤우야 안녕? 나 규민이야. 우리 학교에서 매일 얼굴을 본 지 4년째인데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어색하다. 하지만 용기 내어 마음을 글로 써볼게.

윤우야 넌 항상 나에게 웃음 버튼 같은 친구야. 1학년 때 친구들이 놀리는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괴로웠어. 학교에 가기 싫고 그 친구들을 마주치기도 싫었어. 내 마음은 정말 비 오는날 흙탕물 같았어. ‘왜 나에게 저러지? 나는 잘못하게 없는데..’ 생각이 들고 괜히 그 친구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 선생님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고 말하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과 마음속으로 분노가 쌓였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윤우 네가 “규민아 내가 지켜 줄게! 나만 믿어.” “야! 너네 친구 마음 다치게 하면 언젠가는 너네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해줬잖아. 그때 나는 네가 나를 지키러 와준 아이언맨 같았어. 넌 내 어깨밖에 안 오고 키도 작은데 강철같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언맨 말이야. 그때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너무 부럽고 고마웠어. 그러다 얼마 전에 ‘양파의 왕따 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누군가 놀림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커녕 그냥 바라보거나 심지어 같이 놀리기까지 하더라. 그것을 읽고 나니까 네가 생각났어. 그리고 ‘윤우가 진짜 대단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나도 너처럼 마음을 말로 잘 애

기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

3학년 때 우리가 다른 반이 되고 3월에 친구들이랑 어색할 때 어느 날 점심시간에 네가 뒤에서 “규민아 같이 놀자.” 하면서 나를 안아줬잖아. 나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았어. 너는 내 품에 꼭 안겨서 친구들은 내가 너를 안아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가 나를 바다같이 큰 마음으로 안아준 것은 나만 알아. 내 소중한 친구 윤우야 저쪽 복도 끝에서 “규민아~” 하면서 막 달려올 때마다 나는 비타민을 먹은 것 같이 힘이 나고 웃음이 난다. 방과 후도 다른데 여전히 너는 우리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교문까지 손잡고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워.

윤우야 우리 도덕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인생에서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친구가 5명만 있어도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네가 있어서 벌써 인생이 성공한 느낌이야. 고마워! 나도 네가 힘들거나 슬플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볼게. 나무가 사과, 나뭇가지, 줄기, 밑동까지 다 준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꼭 용기 내어 너의 편이 될게.

남규민 | 영훈초등학교 4학년 |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수상작

## 가끔은 나비가 되어 찾아와줘요

To. 어머니께

엄마 안녕! 사랑스러운 엄마 딸 채원이에요. 잘 지내죠? 자주자주 찾아갔어야 하는데 많이 못 가서 죄송해요. 항상 건강하죠? 1년 동안 엄마 아픈 것만 봐서 그런가.. 걱정되네..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울 엄마 취미가 꽃 기르는 거였는데. 엄마, 지금 엄마의 정원은 어때요? 엄마가 좋아하는 꽃들로 차있으려나? 궁금하다. 엄마가 가고 내 정원에는 별이 들지 않았고 잡초들이 무성한. 그마저도 물이 가득한 탓에 뿌리가 다 썩어가는.. 그런 정원이었어요. 한순간 정원사가 사라졌으니까. 그땐 엄마가 내 정원사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잘 적응했고, 나름의 노하우도 생겨서 점차 생기 가득한 내 정원으로 가꿔가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엄마가 이어주고 간소중한 인연 덕분이에요. 지금 내 정원에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부디 엄마의 정원에도 엄마를 알아주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행복이 가득한 정원 만들어가길 바랄게요. 커가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많았는데.. 또, 같이 교복 구매하러 가고, 봄이 되면 벚꽃 구경하고, 아플 때 같이 병원 가는 날을 매일 상상해요. 매일매일이 아쉽지

만, 난 버틸 수 있으니까. 엄마, 난 엄마가 떠나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 엄마를 다신 못 본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그 순간이 난.. 영원처럼 느껴져요. 엄마가 누워있던 병실,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 까지도 난 지금까지 생각나요. 그 순간이 잊히지 않아요. 근데 다행이지 않아요? 기억 안 나서 가슴 쓰린 것보단 엄마 생각하며 행복한 날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엄마. 엄마는 지금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겠지?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예쁘게 꾸며진 엄마의 정원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자. 나 잊지 말고 가끔은 나비가 되어 찾아와줘요. 엄마가 한 발짝 다가오면 난 두 발짝 세 발짝 용기 내어 다가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요.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직진. 언제 또 시들지 모르는 정원에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보고 싶다. 엄마. 전해지지 않는 편지를 바람에 담아 보냅니다.

강채원 | 동탄고등학교 2학년 | 경기도교육감상 수상작

## 소중한 나의 친구, 혜원이

To. 11년 동안 나와 함께한 친구 혜원에게

길을 가다가 널 발견하면 큰 소리로 “혜원아!” 하고 불렀어. 그럼 너는 늘 그랬듯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달려와 나를 꼭 안아줬어. 나와 함께한 시간도 고마운 일도 많은데 직접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 11년 동안 말 못 했던 고마운 마음을 오늘 용기 내서 전해보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3살 때였나? 엄마한테 듣기론 어린이집에서 처음 만났던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항상 둘이 붙어 있더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친한 친구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가 생각났어. 너에게 고마운 일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까 고민했거든? 근데 이 일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

하루는 내가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했는데 네가 제일 먼저 괜찮냐고 문자를 보낸 거 있지? 그 문자를 보고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 매일매일 핸드폰하고 먹고 자고 숙제하는 날을 보냈어. 처음엔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좋았어.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서 밖에 나가고 싶었어. 그때 너한테서 전화가 왔지. 내가 방에만 있으니까 심심할까 봐 이것저것 샀는데 집 문 앞에 두고 간다고 말했잖아. 언제나 날 생

각해 주는 친구가 있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가 준 선물이 아마 화분이라던 먹거리였던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 너랑 통화를 하면서 선물을 개봉하고 화분에 식물도 심었잖아. 또 내가 젤리를 먹고 있었는데 같이 나누어 먹고 싶어서 내가 창문으로 던지면 네가 받아서 먹었잖아, 기억나? 엄청 재미있었는데. 네 덕분에 2주라는 시간이 빨리 갔어. 또 격리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지냈을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네가 수업 시간에 편지를 썼다면서 종이 한 장을 줬어. 나는 별 생각없이 편지를 읽었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였어. 그때 받은 편지를 읽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꼭 참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우리 전학 간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네 친구여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을 거야. 너는 그 편지를 적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편지를 읽고 감동하였어. 너도 이 편지를 읽고 감동하면 좋겠어. 널 생각하면서 열심히 적은 편지니까.

최근 너네 삼촌이 운영하는 펜션에 갔었잖아. 첫날에는 조금 늦게 도착해서 네가 낚시하는 거 구경하다가 밥 먹고 포켓몬 빵을 후식으로 먹었잖아. 먹고 나서 바다로 나가서 놀았는데 땅을 엄청 열심히 팠잖아. 너는 푸린이라

디그다 노래 부르면서 응원하고 나랑 내 동생이 열심히 봤지. 처음엔 재미로 봤는데 하다 보니까 더 파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결국 2~3시간에 걸쳐 너랑 나랑 둘이 들어갈 만큼 넓고, 내가 들어가서 앉았을 때 안 보일 만큼 깊게 봤잖아. 피곤해도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잤는데 엄청 재미있었지?

그리고 분명 우리는 선크림을 발랐는데 둘 다 마스크 자국대로 타서 투명 마스크 썼다고 엄청나게 웃었잖아. 또 추억이 하나 늘었네. 나는 너와 함께한 추억이 다 소중한데. 편지에 적지 못한 특별한 추억이 많지만 너는 내 친구들 중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라고 생각해. 우리 코로나도 끝나고 어른이 되면 우정 여행 가자! 이 여행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우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을 거야. 네가 나의 친구라는 게 자랑스럽고 고마워. 나는 앞으로 그 누구보다 너를 잘 이해하고 응원하는 친구가 되고 싶어.

5월 15일, 너의 특별한 친구 태연이가.

김태연 | 김해서중학교 1학년 | 경상남도교육감상 수상작

## 신념과 용기를 알려준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께

김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전태혁이라고 합니다. 6월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6월 6일은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은 가슴 아픈 6.25 전쟁을 기리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달력을 보며 그냥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거나, 학교에서 6월만 되면 공부하게 되는 국경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백범 일지]라는 김구 선생님의 책을 읽고 김구 선생님이 신념을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학에 들어가 동학 혁명을 일으키다가 숨어 다니게 되는 신세가 되셨을 때 우리의 국모인 명성 황후가 일본인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신 김구 선생님이 우리의 국모를 죽인 일본 놈을 죽여서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내용과 왜놈을 죽였다며 당당하게 글을 써놓기도 하셨다는 것을 보고 김구 선생님의 용감한 행동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순검에 의해 잡혀 감옥으로 가게 된 김구 선생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으며 당당하게 호통을 치기도 하셨다고 하니 김구 선생님의 대담한 행동

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벌레도 무서워하는 소심한 성격이라 아무리 애국심이 있다고 해도 원수를 갚는다며 일본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한다거나 재판을 받을 때도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김구 선생님은 정말로 깨끗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하게 된 우리나라지만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같은 민족인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한 김구 선생님을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방법으로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뿌리는 잊어버린 채 일본인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과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독립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총과 칼 앞에서

도 당당히 만세를 부르고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김구 선생님  
들 같은 애국지사들의 신념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을  
본받아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만들고,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  
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위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  
음을 갖게 된다면 더 강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시고 행동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꼭 김구 선생님처럼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06.22.

전태혁 올림

전태혁 | 조봉초등학교 6학년 |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아빠에게 따뜻한 위로의 노래가 되어드릴게요

To. 내 모든 것인 아빠에게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딸 채현이에요. 어제 일은 잘 다녀오셨나요? 매일 아침마다 아빠와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나오는 게 아쉽네요. 아빠께서는 제가 학교에 다녀와서 하루를 마무리 할 때 일을 나가시고, 제가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에 갈 때 아빠는 집에 돌아오셔서 하루를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빠와 제가 같은 대한민국, 대구에 살고 있지만 시차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와 다른 시차로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시는 아빠가 사실 매우 걱정돼요. 어두운 밤이 아빠를 두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쏟아지는 잠이 아빠를 괴롭히지 않는지 매일 걱정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빠 방 문을 살짝 열어 잘 주무시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걸 아마 모르시겠죠? 그렇게 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빠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평일에 친구도 만나고 떡볶이도 먹고 학원 가기 싫으면 가끔 몰래 뺨기도 하고 그런데 아빠는 저처럼 떡볶이를 먹고 일을 마음대로 뺄 수도 없으며 같은 일을 몇 십 년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빠는 저에게 한없이 소중한고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존재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저는 이번 시험기간이 너무 힘들게 지나갔어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함이 앞서서 저를 잡아먹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아빠에게 티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티가 났는지, 아빠는 어떻게 아시고 밤에 운전하고 계신 도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해결하고자 하고 해나가자 하는 모는 것에는 방법이 다 있다고, 채현이 너는 천천히라도 분명 그 방법을 찾게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해주신 게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아빠, 감사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그 말과 기억으로 힘을 얻어요. 아빠의 말엔 정말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저도 아빠가 저에게 큰 힘을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힘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빠에게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따뜻한 위로의 가사를 가진 노래가 되고 싶어요. 가사와 멜로디가 뇌에 박혀 영영 잊히지 않는, 가사를 곱씹고 곱씹으면 더 큰 힘이 되는 그런 노랫말이에요. 아빠가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를 떠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큰 힘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아빠에게 감사할 일은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 말하기엔 10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빠를 향한 제 모든 마음이 이 편지로 다 전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



빠,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빠의 모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영원’이라는 말은 잘 믿지 않지만, 아빠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은 꼭 영원하기를 빌어요. 온 마음 담아 빌고 믿으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꼭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의 행복한 기억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기억을 일기장에 담을래요. 제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꼭 아빠와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 말을 말하고 말해도 부족할 만큼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2.05.10.

아빠와 모든 것을 함께할 딸 채현 올림

이채현 | 이곡중학교 3학년 | 대구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저의 생각과 마음을 180도로 바꾸신 선생님!

To. 나의 유일한 말동무, 상담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상담 선생님. 저 시현입니다! 작년에 상담받았는데,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실 것 같네요. 상담받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짧아지고 키도 더 컸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의 근황이 궁금하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신방중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생활 잘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아직도 용곡초에 계시나요? 만약 계신다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는 제 학교생활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워낙 제 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지금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선배님들을 보면 살짝 무섭긴 하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죠. 저는 신방중 1학년 3반의 반장이예요. 제가 반장이 되는 과정이 재밌어서 말할 내용이 많네요. 저는 임시 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니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속으론 이 반의 반장 감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낙선이라는 두려움이 제 몸을 칭칭 감았어요. 그래서 입후보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반장선거 입후보하라고 하셨고, 제가 입후보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말이지 어안이 병병했어요. 반장 선거일에 얼마나 떨리던지... 물론 결과는 좋았어요! 지금은 반장의 역할을 특

특히 해내고 있답니다. 선생님들과 반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기분이 들어서 행복해요. 당연히 친구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도 친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말동무가 없지만, 이렇게 편지로 선생님과 대화하면 말동무가 전혀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친구가 없어도 학교생활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네요. 아무튼 중학교 생활, 공부 등이 너무 재밌네요. (특히 수업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제 할 말만 해도 묵묵히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개월 동안 묵혀두었던 말들이 선생님을 만나 밀 빠진 독에 물 붓듯 나와버렸네요. 선생님을 만나 대화하기 전까지 저는 우중충한 날씨 같았어요. 자존감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도 모르고, 우울한 건지 우울하지 않은 건지... 저를 정의하지 못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 단지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게 생기가 돌아나게 했어요. 게다가 무관심이 일상이 되어 익숙해져 버린 제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해준 것도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저를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래서 지금 저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글을 써보거나 속으로 생각하거나, 어찌 되었든 현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속으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제 습관이 되었어요. 정말 제 습관이 되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속으로 ‘아, 지금 내 기분은 ‘잔잔한 파도’ 같아. 어, 아닌가? 살짝 들뜬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감정을 자꾸 표현해 보니 조금 더 저를 알아가는 것 같아 뿌듯하고,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선생님과 상담했던 때가 떠오르네요. 없던 말동무가 생겨 정말 기뻐요.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무관심에 적응했죠. 정말로 6학년 때 그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제가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제일 멋지다는 걸 깨달았어요. 역시 무관심이 정말 무섭고, 사람은 말을 해야 하나 봐요. 선생님과 상담할 때 정말 재밌었어요. 단지 대화만 하는 것인데도요. 선생님과 다시 대화하고 싶네요.

매주 목요일에 귀찮아도 막상 가면 좋아하는 상담실이 그립네요. 전 아직도 상담 신청하러 가는 날을 기억해요. 여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의 더운 날이었어요. 신청서를 들고 선생님께서 언제 오실까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그 바람에 저는 점점 땀에 젖어갔죠. 그러다가 상담실에 들어갔는

데, 교실과는 차원이 다른 시원함이 제 몸을 감쌌어요. 게다가 선생님께서 주신 얼음이 동동 떠 있는 복숭아 아이스티까지 합세하니 머리가 찡할 정도로 시원했어요.(점점 추워졌어요) 저의 첫 상담실 방문은 좋았답니다. 진짜 진짜 선생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자 제일 감사한 분이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 6학년 때를 즐겁게 회상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지금의 저와 미래의 저는 모두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의 생각과 마음을 180도로 바꾸신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꼭 뵙고 싶네요. 졸업식 날 전화번호를 여쭙볼 걸 그랬어요.. 후회되네요. 선생님은 정녕 제 추억 속에 묻어야 하나요? 생각날 때마다 보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 앞으로 언제 뵙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만나면 신나게 인사해요. 선생님, 꼭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훗날 우리가 만날 때 진짜 진짜 신나게 인사하고! 이 편지는 이제 마쳐야겠어요. 할 말은 더 많지만, 이건 나중에 만나서 해요!

2022년 5월 4일 선생님을 떠올리며, 김시현 올림

김시현 | 천안신방중학교 1학년 | 충청남도교육감상 수상작

## 나는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알아

To. 나 자신에게

안녕 채원아!! 나는 너 자신이야~~ 좀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고 열심히 써볼게!! 물론 감사할 곳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나를 좋아하고 믿어주는 친구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해서 나라의 도움이 되시는 분, 코로나 시대의 없어서는 안되는 의료진분들 등 모두에게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난 나 자신, 즉 너에게 고마워!

채원아! 지금까지 힘든 순간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넌 남의 고민은 잘 들어주지만 정작 네가 힘들 때 남한테 못 말하잖아. 솔직히 안 괜찮은데 항상 괜찮다고 하고,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도 못 하고, 솔직하게 말하지도 못하잖아. 그렇지만 그런 너의 수고를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널 응원하고 있어. 항상 사람한테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 앞으로 너의 이런 성격은 잘 고쳐지지 않을 거야. 마음고생이 심하겠지. 넌 항상 너보다 상대방의 눈치를 더 살피니까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계속 치이면서 살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널 만만하게 대할 거야. 그래도 나만은 너의 그 노력을 알아. 그래서 고마워. 아직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

만, 벌써 인생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고등학생이라는 역할은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딱히 힘들지 않은데도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해. 이런 힘든 생활을 너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줘서 고마워.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결국 버텨내줘서 고마워. 난 네가 나라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유독 요즘 니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써봤어. 뭐 큰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허허~ 이 복잡한 사회에서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 넌 대단해 채원아!! 내가 내 이름을 계속 부르니 너무 어색하네~ 난 앞으로 남은 너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빛날 거라 믿어. 물론 때로는 시련이 오겠지만 그럴 땐 굳이 버티지 않아도 돼. 네가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는 않잖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항상 건강해 줘서 고마워. 내가 항상 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항상 다른 이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내가 나인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 복잡하고 혼란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이란 걸 느낄 수 있게 되었어.

다 너 덕분이야!!

From. 채원이가:)

이채원 | 소담고등학교 2학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상 수상작

## 정말 대단한 우리 엄마, 사랑해요!

To. 나의 나무, 엄마

음. 엄마 안녕?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인데도 편지를 쓰려니 많이 어색하네, 아니 얼굴을 매번 마주하는 사이라 더욱 그러려나? 읽는 게 처음은 조금 어색하더라도 평소 말하지 못하는 진심을 담아 쓸 테니 잘 봐줘!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쓰게 되었냐고? 감사편지라는 공모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일상에 스며있는 배려와 사랑이 당연시되는 바람에 엄마한테 쓸 생각은 못 했었다...? 너무 무뎠던 거야, 촌촌히 겹쳐진 사랑에. 그런데 그날 밤 새벽 공기에 엄마의 사랑을 거듭 느낀 순간에 ‘감사편지의 주인공은 엄마다’라는 생각에 쓰게 되었어.

그날 새벽에 있잖아, 또 내가 밤에 이불 위에 실례를 한 날, 나는 16살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가끔씩 밤에 오줌을 싸버리잖아. 야뇨증 때문에. 이 병은 나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힘들게 해. 내가 화장실에 가면 엄마는 그 소리에 깨고 결국 같이 이불을 뒷정리하잖아. 정말 고단한 줄음에 힘겨울 텐데도. 그럴 때면 정말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무안하고, 죄송스럽고, 한심해지고, 막막해지는 등의 복합적인 감정에 휩쓸어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끔씩 하지만 꾸준히 실례를 해왔고 그때마다 가슴속에 작은 파문이 일지. 하도 이렇다 보니 무뎠지긴 해. 사실은 당장의 줄음이 급급할 때도 많고 낮이 되

면 밤의 일은 새까맣게 잊어. 그렇지만 쓰나미 같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나의 온몸을 휩쓸고 지나갈 때도 역시 있어. 분명 초등학교 때 까진 중학생이 되면 이렇지 않겠지? 했는데 중3인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 사실 난 반쯤 포기했어. 나는 성인이 돼서도 이럴 거야, 주위 사람들이 나의 이 치명적인 결함을 알게 되면 모두 떠나겠지. 그래 나 같아도 가까이하지 않았을 거야. 밤만 되면 찾아오는 이 저주 같은 콤플렉스는 평생 나에게 영거 붙겠지. 나는... 나는 글러먹은 사람이야. 그럴 때면 엄마가, 잠긴 목소리로 내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서연아, 너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바라, 지금은 엄청 많이 나아졌어? 괜찮아 괜찮아. 약 꾸준히 먹고 운동 잘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좋아진다 생각해. 너 많이 좋아졌어.” 아량과 믿음의 그 말을 들으면서 혼란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새벽의 잠에 다시 빠져들지.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만약 내가 엄마였다면, 내 자식의 야뇨증에 단 잠에서 깨어나 고단한 몸으로 수건으로 이불을 문지르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었을까? 엄마가 울적함에 질식한 나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구해줬어.

신서연 | 광주동신여자중학교 3학년 |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작은 틈 사이에서 피어난 꽃

To. 5.18 희생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전 여도초에 다니는 6학년 전교회장 김보민입니다. 전 사회 공부를 하면서 5.18과 다른 민주화 운동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전 그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영화도 보여주셨습니다. 전 이와 같은 걸 보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다른 한구석에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목숨을 희생해 주신 희생자분들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지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민주화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광주 5.18 사건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민주화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당시엔 하루하루가 무섭고 답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자유롭게 그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는 걸 저희 꼭 기억해야 한다고 전 생각 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갈 수 있다면 국립 5.18 민주 묘지에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 상황을 전 더욱 공부하고 제가 능력이 된다면

전 세계 인물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이라도 희생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각자의 꿈을 펼치며 저 먼 하늘에 별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 시민들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끔은 별자리가 되어 저에게 손을 흔들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저는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통과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저희 대한민국을 더욱 반짝이게 이끌어갈게요. 희생자분들께선 작은 틈 사이에서 피어난 꽃이어서 잘은 안 보일지도 모르지만, 잘 둘러보고 살펴보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꽃일 거예요. 그 꽃이 다시는 시들지 않도록 저희가 물도 매일 주고 매일 찾아오고 함께 있어줄게요... 여러분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렇지만 항상 감사한 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안되네요ㅠㅠ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않을 여도초 김보민 올림

김보민 | 여도초등학교 6학년 | 전라남도교육감상 수상작

## 언제나 엄마 앞에서 환하게 웃는 예쁜 막내딸이 될게요

엄마~ 막내딸 미현이에요~^^

웃기를 여미는 추위가 물러가고 따사로운 햇살과 사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피어난 벚꽃이 유난히 눈부시게 훑날리는 계절 5월이 왔어요. 소중한 추억과 즐거웠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학기 중간고사도 끝났어요. 시험기간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옆에서 간식도 챙겨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엄마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면서 시험공부할 수 있었답니다. 시험이 끝나는 날 수고했다는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순간 울컥했는데 제가 울면 엄마 또 속상해하실까 봐 꺾꺾 참았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적응을 못해서 매일 울면서 등교하고 울면서 집에 와서는 자퇴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자퇴만이 답이라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외딴섬에 혼자 버려진 느낌, 친구들과 있어도 투명 인간이 된 것 같고,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내 자신이 그림자처럼 느껴져 너무 서글프고 외롭다는 생각에 학교를 갈 자신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즐겁고 행복했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한

중학교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우는 저를 보며 애써 울음을 참으시던 엄마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는 누구의 아픔보다는 제 마음이 아픈 게 바다만큼 크고 산처럼 거대해서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저보다 엄마가 더 힘드셨을 걸 생각하면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혹여나 제가 자퇴할까 봐 매일매일 노심초사하시며 제 기분과 감정만 어루만져 주시던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불효를 했는지 뒤늦게나마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힘들다고 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던 엄마가 계셨기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마음으로 편지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주신 엄마 덕분입니다.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잘 해 드려야지, 효도해야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제대로 실천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 정말 효도라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엄마 마음 아프지 않고 엄마 눈에서 눈물 안 흘리게 해드릴게요. 언제나 엄마 앞에서 환하게 웃는 예쁜 막내딸이 될게요. 막내딸 때문에 마음 고생하셨을 우리 엄마^^ 저의 엄마여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다음에 태어나도 꼭 저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철부지 막내딸 미현 올림

김미현 | 가좌고등학교 1학년 |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수상작

## 빙판길 사고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To. 2년 전 나를 구해주신 아버지에게.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 연우예요. 아버지가 구해주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아버지가 생각나요. 2년 전 빙판길에서 저희 가족의 차가 미끄러져 도랑에 박혔을 때 차가 폭발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저희 가족을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그전에도 빙판길에서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눈 오는 날 차를 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사실 그날도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정말 용기 내서 간 것이었는데 다시 사고를 당하고는 정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 당했던 사고가 생각나서 엄마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데도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차 문을 열고 저에게 나오라고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은 정말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도와주기를 망설이고 견인용 차량도 오기 힘들었던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그 차에서 나오기 힘들었을 지도 몰라요. 저희를 꺼내주시고 쿨하게 가신 아버지. 그땐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이젠 잘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때 아버지의 용기와 대담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위험하다고 뒷걸음칠 뿐. 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이 편지가 널리 전해져서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만난다면 그땐 정말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From. 연우

나연우 | 순천왕윤중학교 3학년 | 전라남도교육감상 수상작

## 선생님은 나의 이정표

To. 의선 선생님께

선생님을 처음 만난 2018년,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고민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선배를 사귀었던 것 같아요. 참 소심하고 예민했던 13살 소녀에게 선생님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용기와 양보, 배려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좋은 점은, 제 고민을 깊게 생각하시고 ‘나였다면?’에 대답해서 제 상황을 이해하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친구들도 가끔은 가족들도 해주지 못하는 거라 선생님께 자주 고민을 말했던 것 같네요 ㅎㅎ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고, 졸업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선생님 생각이 나요.

18살이 된 저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중학생 때는 실장도 했었고, 200명이 넘는 동학년 친구들 앞에서 제 꿈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고등학생이 된 뒤론 동아리 기장도 맡고 있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있어요 ㅎㅎ. 옆에 보지 않은 않지만, 나를 믿어주고 또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서 저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초반에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저 자신도 많이 싫어하게 되어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던 적이 있었어요. 옆에서 저를 토닥

여주는 사람도 없었고, 믿어주는 사람도,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학기 그렇게 사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제 방 창문을 보면서 ‘죽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사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또 뭐가 되고 싶은지.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해보니 그냥 죽기엔 너무 아깝고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다가 문득,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채연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걸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 그때도 선생님은 제게 많은 위로를 주셨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저를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한 마디 한 마디에 상처받지도, 혼자 있는 것도 많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많이 큰 것 같죠?? ㅎㅎ

인생의 큼직큼직한 사건에서 선생님은 여전히 저의 현명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어주시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걱정애 안  
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의 따뜻함이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생님의 예쁜 제자 채연 올림

이채연 | 원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 전라북도교육감상 수상작



\* 제7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렬: 가나다순

<b>후원처</b>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EBS,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민독서문화진흥회, 문화일보, 샌드박스, 서울대학교행복연구센터, 실천교육교사모임, (사)전국국어교사모임, (주)경성리츠, 참쌤스쿨, 티처빌연수원, 프로스펙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b>홍보대사</b>	가수 위아이
<b>심사위원장</b>	황선미 작가·서울예술대학교 교수
<b>인성함양위원</b>	곽치광, 김병진, 김인중, 김진선, 남기재, 류덕엽, 류재식, 박갑기, 박종원, 박희복, 백성언, 이기중, 이종표, 이황순, 정난영, 정지열, 정혜황, 차상정, 홍은주
<b>교사홍보대사</b>	강현승, 고나경, 김민, 김수정, 김차명, 김택수, 박은솔, 서현선, 서휘경, 석정은, 설성정, 소은, 신민철, 신영환, 안채원, 안태일, 양혁준, 유명선, 유상미, 유수근, 유하영, 이병용, 이승리, 이재영, 이주영, 이진호, 정예림, 최유라, 하지수, 허준석

